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은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여성의 제모의 인식과 실태 및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

2014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이 유 진

성인여성의 제모의 인식과 실태 및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

이 은 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年 11月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이 유 진

인 준 서

이 유 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용관리 행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용 산업은 단순히 타고난 외모를 유지 관리하는 범주를 벗어나 외모를 개선시키는 역할과 위생적이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제모관련 산업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미용관리의 한 부분으로써 정착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피부 관리와 미용행동의 특성 및 제모의 사용실태와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해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대~40대 성인여성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20대 63.2%, 30대 31.6%, 40대 5.1%로 미혼 70.7%, 기혼 27.9%이었으며, 고졸 20.8%, 전문대졸 31.6%, 대졸 38.7%, 대학원이상 5.7%, 기타 3.7%로 학생 16.2%, 전업주부 15.4%, 전문직 28.5%, 사무직 21.7%, 판매서비스직 13.4%, 기타 4.8%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피부유형은 20대와 30대의 경우 복합성이 각각 18.6%, 8.3%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건성 2.6%이었다 ($p < .01$), 피부관리 방법의 경우 피부관리실 방문 43.9%($p < .01$), 전문직과 전업주부의 경우 피부 관리실 방문이 각각 11.4%,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1$). 또한 기혼이 미혼보다 월 평균 피부 관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미용지출 비용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

록 평균 지출비용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셋째, 미용관리 행동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에 관련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은 전문직의 경우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1$),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은 20대 3.41점, 30대 3.68점, 40대 3.83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p < .01$), 그러나 최신 유행 패턴에 맞는 색조화장은 20대가 3.05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5$).

넷째, 첫 제모를 시작한 나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작이 낮았으나($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시작한 나이가 많은 것으로($p < .001$). 학생의 경우 19.40세로 가장 낮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24.07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제모를 한 기간이 길었으며($p < .001$), 겨드랑이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리 28.5%, 팔 13.4%, 브라질리언 13.1%, 안면윤곽 6.6%, 비키니라인 2.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면도 42.5%, 전문 관리실 30.2%, 레이저 11.1%, 화장품 10%, 제모기 5.7%, 스트립 제모 0.6%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용관리 행동 인식도, 제모후 만족도, 비키니 브라질리언 만족도, 제모인식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용관리 행동 인식도, 비키니 브라질리언만족도, 제모인식의 경우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제모를 할 때와 다른 제모방법의 차이 및 전문샵에서 제모를 받는 것과 셀프 제모와의 차이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향후 제모서비스의 의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여섯째,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p<.001$), 비키니& 브라질리언 제모를 받은 후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또한 얼굴 제모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얼굴 제모에 대한 만족도와 제모 후 화장이 잘 받는 것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얼굴 제모의 꾸준한 관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겠다는 응답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제모관리의 인식과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뷰티산업의 한 분야로서 제모산업이 자리매김을 하기를 기대하며 제모마케팅의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외모관리	5
2. 제모관리	7
1) 제모관리 역사	7
2) 제모관리 방법	10
3) 피부유형에 따른 제모관리	17
III. 연구 방법	19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19
2. 조사 내용 및 방법	19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21
IV. 연구결과 및 고찰	22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22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4
3. 인구통계적 특성	25
4. 피부관리 행동	27
5. 미용관리 행동	39
6. 제모관리 행동	57
7. 제모관리 만족도	67
VI. 결론 및 한계점	75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표 1> 설문지의 구성	20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 계분석과 신뢰도 분석	23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5
<표 4>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결과	26
<표 5>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단계 의한 피부의 유형 분석결과	28
<표 6> 조사대상자의 피부 문제점 분석결과	30
<표 7>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방법 분석결과	32
<표 8>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월평균 관리횟수 분석결과	34
<표 9>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이유 분석결과	36
<표 10>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지출비용 분석결과	38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분석결과	40
<표 12> 조사대상자의 헤어스타일과 외모관리의 인식 분석결과	42
<표 13>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지식과 정보 관심도 차이 분석결과	44
<표 14> 조사대상자의 외모 콤플렉스 분석결과	45
<표 15> 조사대상자의 화장품선택의 적합성 분석결과	46
<표 16> 조사대상자의 기능성화장품의 지속사용 분석결과	48
<표 17> 조사대상자의 어울리는 화장법 사용 분석결과	49
<표 18>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에 지식과 정보의 관심 분석결과	51
<표 19> 조사대상자의 다이어트 경험 분석결과	52
<표 20> 조사대상자의 다이어트식품 구매경험 분석결과	53
<표 21> 조사대상자의 체형보정복의 착용 분석결과	54
<표 22> 조사대상자의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 실태 분석결과	56

<표 23>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최초시기 분석결과	58
<표 24>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기간 분석결과	60
<표 25>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선택부위 분석결과	62
<표 26>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의 인지 분석결과	64
<표 27>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방법 분석결과	66
<표 2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제모만족도 분석결과	67
<표 29> 조사대상자의 미용관리 행동과 제모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68
<표 30>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결과	70
<표 31>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결과	72
<표 32> 얼굴 제모인식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결과	74

I. 서 론

1. 연구 배경

현대사회의 빠른 경제성장과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며 일반인들에는 외모관리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또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강현지, 2010) 아름다운 피부관리를 위해서 바르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모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제모관리를 위한 피부실, 병원, 전문적인 제모 관리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해외 콘텐츠의 유입 등으로 여러 나라의 미용 교육 프로그램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 되면서 많은 종류의 미용 분야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서미영, 2011).

현대사회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존재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며 ,특히 미용산업은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문화적으로 유행을 추구하고자 한다(차혜림, 2013).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로 인하여 노출패션과(최영심, 2012) 수영·요가·벨리댄스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여성들의 신체노출의 제모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람의 외모는 사회활동 영위를 위한 수단이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외모관리를 통한 이미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강현진, 2010)보다 하얗게, 보다 깨끗하게, 보다 탄력 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미용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피부관리실 형태 및

관리 방법들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 고급화되고 있다(김명숙, 2010).

제모관리는 이와 같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드러나는 피부는 외모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용행동의 한 부분으로(차혜림, 2013) 그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나 외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서미영, 2011) 제모시장 규모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황윤정, 2007). 최근 제모로 고민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중매체의 광고와 홍보의 효과로 제모관리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제모전문 샵, 피부샵과 연계한 shop in shop, 네일과 연계한 shop in shop, 제모전문병원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확한 통계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김도이, 2009).

국내 제모시장의 현황은 임상데이터나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매뉴얼화, 흉내 내기와 대부분 관련 제품의 마케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강현지, 2010)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모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최영심, 2012). 또한 소비자들은 제모관리에 적극적이거나 현재 제모 클리닉 서비스는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제모방법은 또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레이저를 사용한 제모시대가 시작되었으며(이나영 등, 2005) 레이저 제모는 1960년 시작돼 30년 후인 1990년대 중반 미국 식품 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보편화 되었고 이와 함께 IPL과 같은 영구제모기술이 등장했다.(조은정 등, 2003)(Italy Rica, 2006) 이와 같은 레이저 제모 방법은 현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져 현재 남성들도 IPL 수염제모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다(김승아, 2008). 또한 트렌드에 맞춰서 미용적으로 자신의 신체상에 부정적이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제모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모부위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이나영등, 2005). 그러나 부위별 레이저 제모술의 임상적 고찰에 관해 연구하는 등 영구제모에 해당하는 레이저 제모에 대해 연구되었지만(장인숙 등, 2012), 일시적 제모와 같은 실제 제모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와 이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제모시장의 수요 실태와 선호도등 업계 마케팅 방안에 대한 기초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여혜연 등,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들의 제모관리의 인식과 전반적인 제모 관리행동에 관한 실태와 제모부위에 따른 선호도 및 만족도를 통해 제모시장 확대에 따른 향후 전망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모시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자료로써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외모관리를 통한 이미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면서 보다 젊고 아름다운 피부와 신체를 가꾸려는 소비자들의 피부관리와 외모관리 행동을 분석하고 제모관리의 인식과 실태 및 제모부위별 선호도와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모관리 방법의 선택과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에스테틱산업의 한 분야로서 유용하게 쓰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제모관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피부관리 행동에 대해 분석한다.
-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외모관리 행동에 대해 분석한다.
-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제모관리의 인식과 행동에 대하여 분석한다.
-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리

외모관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자 경쟁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개인의 욕구와 개성 감정까지 표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배인선, 2010). 현대가 이미지 시대라고 불릴 만큼 좋은 이미지에 대한 동경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지만(이주영, 2011)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이미지에 더 많은 매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므로 외모관리가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되어질 만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이다(이혜원, 2009).

외모관리는 자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뿐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외모성장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서미영, 2011).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어떻게 제시해야 좋을지를 생각하며 외모를 꾸민다(이주영, 2011). 또한 현대사회는 “Beauty is good ”이라는 신체적 매력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Cox, C. J. 등, 1986)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윤소영, 2007).

현대인들에게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가꾸는 차원이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는 것으로 자신의 외적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차혜림, 2013) 개인의 사회적 성공조건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 또는 부를 상징하는 기준이 될 만큼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배인선, 2010). 특히 여성의 외모는 명백히 만 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고 사회적 관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형성되면서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주영, 2011).

신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최대한 커버하여 보다 매력적으로 향상된 외모이미지를 갖고자 하는 노력이 외모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외모관리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강영숙 등,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능적으로 대응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게임의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백연순, 2013)

외모관리 행동은 일반적으로 헤어스타일 및 모발, 두피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스킨케어, 체형관리, 다이어트, 미용성형, 제모관리 등 외모를 가꾸거나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배인선, 2010) 이러한 외모관리 행동을 통하여 타고난 외모를 보완하여 더욱 아름다워 질수 있고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영숙, 2010). 외모관리 행동 중 제모에 관한 관리행동으로 바디제모, 얼굴제모, 비키니, 브라질리언 제모 등 건강한 피부와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결 케어를 위한 관리 행동이 모두 포함되므로(윤소영, 2007) 본 연구에서는 제모관리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체모관리

1) 체모관리 역사

(1) 선사시대

인간에게 있어 체모라 불리는 체모의 제거에 대한 정보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박정아, 2012). 사람들은 다양한 장치와 재료를 사용해 원하지 않는 체모를 제거해왔다.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체모를 했다고 믿는다(윤초희, 2010). 선사시대에 그들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돌, 조개껍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트위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개의 조개껍데기를 이용하여 체모를 했다(Victoria Sherrow, 2006).

(2) 고대시대

고대에는 성인 여성의 몸에서 체모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놓아두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Agencies, 2013). 여성의 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평가하는 이런 문화는 중세시대의 많은 예술작품 속에 여성의 신체가 털 한 올 없이 매끄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아도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Victoria Sherrow, 2006).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 제식의 한 부분으로 체모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박정아, 2012). 신들의 몸에는 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털을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몸의 털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람들은 노예나 이방인뿐이었다(윤초희, 2010). 한편 미용 목적의 체모도 꾸준히 행해져 왔다. 로마의 귀족부인들은 콧속 털까지 포함해 전신의 털을 제모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이수근, 2011).

고대의 수메르인과 로마인들은 현대의 족집게와 유사한 도구를 만들었다. 고대 중국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은 매듭지어진 줄을 사용해 원하지 않는 체모를 제거했으며(Victoria Sherrow, 2006). 이 방법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이빙(shaving)과 어브레이션(abrasion)은 넓은 범위의 체모에 있어 일반적인 방법이다(Agencies, 2013). 고대인도 힌두교들은 얼굴과 음모를 면도했다(Riddell, L, 등, 2011)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시원함을 유지하거나 우글거리는 이를 막기 위해 그들의 머리를 깎았다. 이집트 여인들은 그들의 다른 부위의 체모를 깎았고, (Garrison, R, 1997)비즈왁스(beeswax)나 알칼리로 만든 생석회 같은 크림제모제를 사용해 다리 체모를 했다(Victoria Sherrow, 2006). 장례를 지내면서 무덤에 함께 묻은 부장품들을 살펴보면 털을 없애기 위해 석회가루와 풀 찌꺼기를 뒤섞은 화장용 혼합물을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박정아, 2012).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의 사람들 또한 체모를 위해 부석돌을 포함한 염마제의 재료를 사용했다(Victoria Sherrow, 2006).

미국 원주민들과 태평양제도 원주민들은 날카로운 조개껍데기를 사용해 체모를 긁어내 체모를 했다.(Garrison, R, 1997) 사모아 섬사람들은 겨드랑이는 체모 했지만, 음모를 온전히 남겨두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마야인과 아즈텍인들은 흑요석을 아주 날카롭게 깎아, 이것을 사용해 면도했다(Victoria Sherrow, 2006). 브리질 원주민들은 대나무를 쪼개 족집게로 사용해 음모, 눈썹, 속눈썹을 제거했다(윤초희, 2010). 북부 로디지아에서는 체모를 뽑기 전 체모하기로 예정된 부위에 따뜻한 재료 마사지를 했다. 고대 터키인들은 맨 처음 화학제로 체모를 했을지도 모른다(Agencies, 2013). 이 화학제는 피부표면의 체모를 용해시킨다. “Rhusma”라고 불리는 이 혼합액은 3황화비소, 생석회(알칼리), 녹말로 만

들어졌다. Rhusma는 이미 기원전 4000~3000년에 만들어졌다(Victoria Sherrow, 2006). 1700년 동안, 유럽의 이주자들은 미국 원주민들이 부식성 잿물을 사용해 피부의 털을 불태워 없애는 것을 목격했다(Garrison, R, 1997).

(3)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당시 유행이었던 넓은 이마를 만들기 위해 이마 위쪽의 털들을 잔뜩 뽑았고 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민간요법들도 개발됐다(이수근, 2011).

중세여성들은 그 당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던 페일 룩(pale look)과 넓은 이마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눈썹과 이마, 헤어라인의 털을 뽑아왔다. 그들은 족집게나 겸자를 사용해 그들의 체모를 뽑아냈다(박정아, 2012). 그리고 체모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어린 소녀들은 호두오일을 그들의 이마에 발랐다. 체모의 다른 방법으로는 식초 또는 건조된 고양이 똥을 그 부위에 직접 바르는 방법이 있었다(Victoria Sherrow, 2006).

(4) 근·현대사회

18세기부터 이 체모제를 이용한 레시피는 “Polverized eggshells”라고 불린다. 1840년대 미국에서는 파우더 체모제를 이용 할 수 있었다. 어떤 파우더는 물과 섞어서 사용했고, 그 섞인 반죽을 피부에 발랐다(Garrison, R, 1997). Dr. Gouraud라 불리는 한 남성은 뉴욕시 신문에 자신의 파우더 체모제를 광고 냈는데, 그 광고에서 그는 이 체모제가 시바여왕이 아끼는 뷰티시크릿이라고 주장했다(Victoria Sherrow, 2006).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질레트가 안전하고 편리한 현대적 면도기를 발명하면서 면도가 안전

한 제모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질레트가 “겨드랑이에 털이 있는 여성은 여성답지 않다”는 광고를 냄으로써(여혜연 등, 2012) 근대 여성들의 털 혐오감을 부채질한 것도 유명한 일이다. 어쨌든 면도도 분명히 간편한 제모의 한 형태다(이수근, 2011).

20세기 후반에는, 뿌리에서부터 털을 뽑아내는 새로운 세이빙 장치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피부표면의 털을 세이빙 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Gerson Joel, 1999) 또한 뿌리에서부터 털을 제거하는 waxing은 눈썹, 얼굴, 비키나라인, 다리, 팔, 등, 복부 그리고 발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의 일부분들에 사용될 수 있다(이수근, 2011). 초기 waxing의 형성은 주로 비즈왁스(beeswax)와 같은 자연적인 물질을 사용하였다.(Victoria Sherrow, 2006).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coco de mono tree의 waxy sap도 제모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Janet Wickell, 2012) 기업들은 집이나 샵(salon)에서 사용할 다양한 왁싱 세트들과 구성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고객들이 왁싱 서비스를 위해 샵을 방문하였다(Italy Rica, 2006).

2) 제모관리 방법

(1) 일시적 제모

① Shaving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제모 방법이다. 면도기를 이용하여 얼굴이나, 팔, 음모관리를 제외한 다리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Italy Rica, 2006). 1주일에 1-2회 적절하며

목욕이나 샤워 후 털이 부드러울 때 Shaving cream이나 비누거품을 바르고 면도를 한다(Janet Wickell, 2012).

면도를 하면 털이 굵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윤초희, 2010). 털이 잘려 나가서 피부표면에 털이 올라오는 성장속도가 사람마다 차이를 가지지만 성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계속 매일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Pugliese, Peter, 1991).

② Chemical Depilatories

Hair, GIGI, Surgi cream등 유사한 로션, 크림, 거품 형태의 화학적인 제모제품들이 있다.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털을 녹인다. 화학제모는 어디서든지 식료품이나 약을 파는 곳에서도 접할 수 있다(Janet Wickll, 2012).

불필요한 털을 화학적 작용에 의해 제거하는 것으로 탈모제에 비하여 통증도 없고 왁스처럼 가운하지 않아도 되므로 널리 사용된다.(Agencies, 2013) 성분은 유화발륙, 유화 스트론 치움의 유화물과 치오콜린 산염이 주로 사용된다(Gerson Joel, 1999). 화학제모제 사용방법은 털이 길면 먼저 가위로 털을 1cm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 제모제를 피부에 바르고 7-15분 정도 방치한 후 닦으면서 미지근한 물로 세정한다(Janet Wickll, 2012). 그러나 새로운 모발은 상당히 빠르게 보인다. 화학적 작용에 의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적 제모제는 피부에서 다른 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Pugliese, Peter, 1991). 그러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피부 스킨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여혜연 등, 2012). 그러나 이 방법은 털을 녹이는 구성성분이 피부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많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Janet Wickll, 2012).

③ Roll -ons

왁싱의 비교적 새로운 ‘롤온’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 도구에는 왁스가 들어있고 롤온은 헤드를 가지고 있다. 이 도구는 이 도구에 맞게 제작된 가열기에서 열을 얻는다(Janet Wickll, 2012).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털이 뽑힌다. 많은 전문가들은 논온 왁스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다(Italy Rica, 2006). 이 도구는 털 지분하고 사용하기에 위생적이며 현대에서는 셀프 왁스 기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추세이다(Gerson Joel, 1999).

④ Paper Wax

종이에 왁스를 응고시켜 만든 제품으로 마트나 화장품 판매점 약국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모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제품이다(Agencies, 2013). 제모 시 통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모전 피부에 파우더를 발라 주면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Janet Wickll, 2012).

⑤ Decolorization

털이 짙은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털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탈색하는 방법으로(이나영 등, 2005),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일본의 탈색제는 식료품이나 약국·화장품 판매점에서도 접할 수 있다(Pugliese Peter, 1991).

H₂O₂에 암모니아수를 섞어 발라 털의 색을 옅게 탈색 시키는 방법으로 털이 가늘고 부드럽게 보이는 착시 효과적이다(Janet Wickll, 2012). 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색상을 옅게 하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팔이나, 다리, 눈썹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Agencies, 2013).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는 혼합한 용액을 만들어 거즈에 적셔 원하는 부위에 털을 없앤다. 털의 색이 검은 경우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다(Janet Wickll, 2012) 탈색 전에는 첩포 시험을 하여 피부에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자주성이 강하므로 얼굴 등에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작용 사례로는 백반증을 유발 할 수도 있다.(Gerson Joel, 1999)

⑥ Hair cutting

비키니·브라질리언·눈썹 부분을 정돈할 때 족집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위가 넓어서 털이 많은 경우는 가위로 자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비키니 셀프 커트>를 14세부터 하기 시작한다(Jennifer L. Bercaw-pratt MD 등, 2011).

눈 주위에는 피부가 연약하여 자극받기 쉽고 피부 탄력을 잃기 쉬우므로 눈썹 손질용 가위로 자르는 것이 좋다(여혜연 등, 2012).

⑦ Tweezing

족집게를 사용해서 눈썹부위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되며 이 방법은 부위가 좁을 때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많은 털을 제거할 때는 비현실적이다(Gerson Joel, 1999). 족집게는 가능하면 탄력이 강한 것을 선택하고(Hinkle, A. R, 등, 1968) 스틱타월을 모공을 이완시

킨 뒤 털이 자라난 반대 방향으로 한손으로 족집게를 잡고 다른 한손은 피부를 같이 당겨주면 털을 뽑을 때 통증이 훨씬 덜하다.(Italy Rica, 2006) 족집게는 털을 뽑다보면 털이 뿌리까지 뽑히지 않고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모낭염, 홍반, 색소침착, 반흔, 인그로운 헤어 등을 유발할 수 있다(Gerson Joel, 1999).

⑧ Threading

매듭지어진 목화 실을 사용해 털을 뽑는 방법으로 매우 오래된 방법이다(Garrison, R, 1997). 이것은 매우 빠르고 tweezing을 자주하는 눈썹이나 얼굴의 다른 부위의 프로덕션 버전이다. 이것은 피부에 트라우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약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방법이다(Gerson Joel, 1999).

⑨ waxing

왁스를 이용한 제모법이다. 송진·밀랍·고형파라핀 등이 주성분으로 왁스를 녹여 피부에 발라서 털을 모근까지 제거하게 된다(Agencies, 2013) 면도나 제모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2주~6주)된다. 부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털이 나는 속도는 생활환경에 따라 사람 개인의 차이가 있다(여혜연 등, 2012).

면도나 제모크림은 사용할 때 보다 털이 다시 나기 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Gerson Joel, 1999). 또한 왁스를 이용해서 제모를 한 후 성장하는 털은 처음보다 더 가늘게 성장하며 여러 번 시술 후에는 모낭이 파괴되어 털의 성장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서미영, 2011). 털을 제거할 때 피부표면에 통증을 느끼는 단점은 있으나 털이 진피에 속해 있으므로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생기는(김남해, 2006)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관리 받는 분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 왁싱 후 소독-천연 오일 클린징-진정로션-세럼-에멀전 까지 왁싱 전보다 왁싱 후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Italy Rica, 2006).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제품으로 피부를 재생 시켜줘야 한다.(김명숙, 2010). 왁싱은 주기를 지켜 주는 게 좋으나 개인차도 있다. 얼굴전체 4-6주 눈썹·인중 2-3주, 바디 2-3주, 비키니 3-4주, 브라질리언 4-6주 등 부위마다 주기가 다르고(Italy Rica, 2006), 자주 왁싱을 할 경우 피부가 상하고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소프트 왁스의 경우 스트립 왁스로 뜨거워질 때 꿀의 농도가 된다(Italy Rica, 2006). 피부에 얇게 바르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막을 수 있고 천을 사용하는 왁스이므로 신체부위가 넓은 곳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다리나 팔, 등, 앞가슴 부위이다(여혜연 등, 2012). 또한 논 스트립 왁스인 하드 왁스는 천을 사용하지 않는 왁스이며 이 왁스는 딱딱하다(Janet Wickll, 2012).(Italy Rica, 2006). 왁스가 녹는 온도가 낮아서 피부에 덜 자극적이며 이 왁스는 피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털만 잡아당기므로 피부가 자주 민감한 사람에게 사용한다(Italy Rica, 2006). 신체부위에서 민감한 부위 예를 들면 얼굴 겨드랑이, 비키니, 브라질리언 부위이다(Gerson Joel, 1999).

(2) 영구적 제모

① Electrolysis

모낭을 파괴하여 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털구멍마다 바늘

을 찌른 후 전류를 통하게 되므로 시술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Agencies, 2013). 전기침 탈모법이 국내에 알려진 것을 10여 년 전으로 레이저가 나오기 전까지 유일한 영구 탈모법으로 각광을 받았다(Janet Wickll, 2012).

② Laser Hair Removal

레이저 제모는 검은 멜라닌 색소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한 제모방법이다(손호찬 등, 2003). 털의 검은색을 나타내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파장의 레이저는 조사하여 정상피부의 손색없이 모낭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영구 제모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Pugliese, Peter, 1991). 나라마다 제모를 위한 레이저 도구를 사용하는 자격증 취득이 다르며 특히 전문인이 기계를 사용해야 안전하다(Janet Wickll, 2012). 털의 멜라닌 색소에 흡수된 열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장인숙 등, 2012) 또한 그 주변으로 확산되어 모발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모낭과 모근 그 주변의 멜라닌 색소를 가진 세포까지 모두 파괴함으로써 영구적으로 파괴 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한다(Gerson Joel, 1999).

모든 사람들이 레이저 제모에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다(조은정등, 2003). 털의 색깔이 옅고 털이 가는 경우, 흰색 털은 제모가 되지 않고, 털이 촘촘히 나있는 경우 시술받은 시점의 피부가 검은 경우 레이저 시술효과가 적게 나타난다(Janet Wickll, 2012). 어떤 제모 방법보다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레이저 제모방법을 제안하지만, 영구제모는 아니다(손호찬 등, 2003).

3) 피부유형에 따른 제모관리

피부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피부의 유분 량과 수분량에 분량에 중성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복합성 피부의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한다(김명숙, 2010). 또한 문제성 피부 유형으로 민감성 피부, 여드름피부, 노화피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백연순, 2013). 이러한 피부 유형은 개인 생활환경, 유전적, 연령, 기후, 계절, 수면상태, 화장품 사용, 스트레스 등의 요인에 따라 항상 변화할 수 있다(배인선, 2010)(강현진, 2010). 이러한 피부 유형들의 특성은 땀샘 기능의 증감이나, 혈액순환 상태, 피부의 두께, 피부색 등이 피부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김명숙, 2010) 피부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관리법을 이해하여 제모관리 시 적용한다.

중성피부의 경우 유 수분 밸런스가 정상적인 상태이므로(김남해, 2006) 제모시 특별한 제안을 두지 않는 피부이지만 제모시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다른 피부타입 보다는 제모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건성피부의 경우 유 수분 부족형 피부이므로(배인선, 2010) 제모시 피부손상을 주의해야 하며 제모 후 보습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피부이다. 지성피부의 경우 여드름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김명숙, 2010) 제모를 피해야 하며 제모 후 모낭염과 같은 감염에 주의해야 하며 제모 트리트먼트를 알로에베라젤 같은 산뜻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Italy Rica, 2006). 복합성피부의 경우 제모시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위에 따른 피부유형별 주의 사항을 따른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 자극에 아주 민감하므로(김남해, 2006) 제모시 자극을 최소화하는 기술방법을 적용하고 제모 후 피부진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피부이다

민간성 피부는 민감성전용 제모 제품을 사용 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 할 수 있다(백연순, 2013). 또한 여드름 피부는 제모를 피해야 하는 피부이다. 제모시 여드름 균이 다른 곳으로 번식하여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김명숙, 2010), 더욱 주위를 해야 하는 부위가 안면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모를 꼭 받아야 한다면 전문인과 충분한 상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화 피부의 경우 제모 시 피부 탄력감이 많이 떨어지므로(이나영 등, 2005), 제모시 피부 텐션 유지에 주의해야 하며 제모하기 2일 전 각질 제거를 하면 제모 후 만족한다. 제모 후 보습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제모관리의 인식과 실태 및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의 20대~4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거친 뒤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양식은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포하였으며 자료 정리(Data Cleaning)를 거쳐서 무응답 또는 불성실 등 비정상적인 29부를 제외하여 3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율은 92.3%이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선옥(2013), 백연순(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5문항을 추출하였으며, 두 번째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피부의 유형, 피부의 문제점, 피부관리의 방법, 월평균 관리횟수,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피부관리에 지출되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피부관리 행동에 관한 6문항과 세 번째의 미용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16문항의 경우 이 유민(2012), 차혜림(2012)의 문헌에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네 번째, 제모시기, 제모방법, 제모기간, 제모부위, 제모인지 등 제모관리의 인식과 실태에 관련된 18문항과 다섯 번째, 인그로운헤어, 비키니& 브라질리언, 얼굴제모등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의 구성은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성내용	내용	문항	척도방식	이론
인구통계적 특성	학력, 혼인, 직업 연령, 소득	5	객관식 주관식	고선옥(2013) 백연순(2013)
피부 관리 행태	피부유형, 피부문제점 피부 관리방법 월평균관리횟수 관리의 이유 지출비용	6	객관식 주관식	이유민(2012) 차혜림(2012)
미용 관리 행동	미용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16	5점척도 (Likert)	이유민(2012) 차혜림(2012)
제모의 인식과 실태	제모시기, 제모방법 제모기간, 제모부위 제모인지, 제모방법	18	객관식 주관식 5점척도 (Likert)	본 연구자
제모의 만족도	인그로운 헤어	5	5점척도 (Likert)	
	비키니&브라질리언 얼굴제모	5 4		
총 문항	-	59	-	

n=351(100%)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제모에 관한 현대 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제모부위 만족도에 대하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제모에 관한 현대 여성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은(Factor analysis)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요인분석 모델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r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이 있다. 최초의 정보를 최소한의 요인으로 압축하고자 할 때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수를 축소, 압축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에는 직각회전 방법(orthogonal rotation)을 이용하였는데 직각회전은 회전시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 직각회전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방법 중에서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 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적인 기준은 ± 0.40 이상이다. 그리고 ± 0.50 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기준인 ± 0.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value)는 1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유치 1이상, 요인적재량 ± 0.40 이상을 기준으로 도출된 요인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각회전방

법 중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표 2>

<표 2 >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

	세부 항목	전체	% 분산	% 누적	
외 모 관 리 에 대 한 인 식 과 태 도	1	나의 모발상태(머리색, 머릿결)에 만족한다.	7.16 9	20.4 8	20.4 8
	2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잘 따라하는 편이다.			
	3	좋은 피부를 갖는다는 것은 외모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일반적인 마사지·팩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5	피부문제로 인한 열등감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다.			
	6	나의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세안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화장 안한 얼굴보다 화장한 얼굴이 더 보기 좋다.			
	8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선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아이크림 등)			
	9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부화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11	화장을 할 때바 지을 때 더욱 신경을 쓴다.			
	12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			
	13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14	체중 조절을 위해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 자주 간다.			
	15	체형을 위해 보정속옷(올인원, 코르셋 등)을 입은 적이 있다.			
	16	미용성형은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 키 니 & 브 라 질 리 언	1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5.35 0	15.2 8	35.7 6
	2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고 질염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3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고 위생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4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한번 받아보셨다면 꾸준히 관리 받고 싶으신가요?			
	5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다른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제 모	1	얼굴 제모에 대해 알고 있으세요?	4.59 7	13.1 3	48.9 0
	2	얼굴 제모를 받고 화장이 더 잘 받는 것을 느끼시나요?			
	3	얼굴 제모를 한번 받아 보셨다면 꾸준히 관리 받고 싶으신가요?			
	4	얼굴 제모를 다른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을 통하여 3개의 주요 요인이 도출되었다.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서 도출된 3개의 주요 요인에 이름을 부여하였다.<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항목의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파악하고, 요인 적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는 반면, 공유치가 .30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고,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에 중복 적재된 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검증에서 크론바하 알파 값을 참조하여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제거하였다.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제모만족도, 미용관리행동 인식도, 비키니브라질리언 만족도, 제모인식도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제모만족도, 미용관리행동 인식도, 제모 후 만족도, 비키니브라질리언 만족도, 제모인식도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표 3>.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외모 인식 및 태도	2.6517	.49958	.788
비키니브라질리언만족도	3.6830	.91896	.687
제모인식도	3.6830	.91896	.874

3.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28.7세이며 20대 63.2%, 30대 31.6%, 40대 5.1%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로는 미혼 70.7%, 기혼 27.9%, 기타 1.4%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 20.8%, 전문대졸 31.6%, 대졸 38.7%, 대학원이상 5.7%, 기타 3.7%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 16.2%, 전업주부 15.4%, 전문직 28.5%, 사무직 21.7%, 판매서비스직 13.4%, 기타 4.8%로 나타났다. 소득은 평균 244.59만원이며 100만 원 이하 14.5%, 100-200만 원 이하 43.6%, 200-300만 원 이하 25.6%, 300만 원 이상 16.2%로 나타났다<표 4>.

<표 4>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결과

		빈도(N)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령구분	20대	222	63.2	28.7	5.40
	30대	111	31.6		
	40대	18	5.1		
결혼여부	미혼	248	70.7	-	-
	기혼	98	27.9		
	기타	5	1.4		
최종학력	고졸	73	20.8	-	-
	전문대졸	111	31.6		
	대졸	136	38.7		
	대학원이상	20	5.7		
	기타	11	3.1		
직업	학생	57	16.2	-	-
	전업주부	54	15.4		
	전문직	100	28.5		
	사무직	76	21.7		
	판매서비스직	47	13.4		
	기타	17	4.8		
소득	100만원 이하	51	14.5	244.59	161.02
	100-200만원	153	43.6		
	200-300만원	90	25.6		
	300만원 이상	57	16.2		
합계		351	100.0	-	-

4. 피부관리 행동

1)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피부의 유형

조사대상자의 얼굴 피부의 유형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살펴본 결과, 연령구분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복합성이 각각 18.6%, 8.3%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건성 2.6%로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민감성피부타입이 가장 적었으며 30대 경우 중성, 40대의 경우 중성과 민감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p<.01$).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기타의 경우 지성이 7.1%, 1.4%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과 대졸의 경우 복합성이 각각 9.7%, 13.4%,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성과 복합성이 각각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졸과 전문대졸의 경우 민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졸과 대학원 이상은 중성, 기타의 경우 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전체적으로는 복합성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성 22.5%, 건성 21.1%, 중성 14.5%, 민감성 13.1%순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차혜림(2013)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용과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복합성 피부(207명, 37.6%) 건성 피부(146명, 26.5%)순으로 조사된 것과 김수빈(2008)의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복합성 피부(29.6%)가 높았던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혜영(2012)과 박봉선(2012)의 피부유형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각각 건성피부가 37.5%, 33.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표본의 연령에 따라 피부유형의 차이를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20대의 경우 63.2%를 차지하였으므로 연령이 낮을수록 피지분비량에 의한 트러블 피부 때문에 복합성 피부로 생각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피부 진피 층의 콜라겐 감소

와 표피층의 수분이 감소되어지므로 건성 피부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피부의 유형 분석결과

구분	피부타입					합계 (%)	
	건성 (%)	중성 (%)	지성 (%)	복합성 (%)	민감성 (%)		
연령 구분	20대	41(11.7)	37(10.5)	54(15.4)	66(18.6)	24(6.8)	222(63.2)
	30대	24(6.8)	14(4.0)	22(6.3)	29(8.3)	22(6.3)	111(31.6)
	40대	9(2.6)	-	3(0.9)	6(1.7)	-	18(5.1)
$\chi^2(p)$		19.963*(.010)					
결혼 여부	미혼	49(14.0)	40(11.4)	58(16.5)	71(20.2)	30(8.5)	248(70.7)
	기혼	25(7.1)	11(3.1)	18(5.1)	28(8.0)	16(4.6)	98(27.9)
	기타	-	-	3(0.9)	2(0.6)	-	5(1.4)
$\chi^2(p)$		9.87(.274)					
최종 학력	고졸	20(5.7)	9(2.6)	25(7.1)	12(3.4)	7(2.0)	73(20.8)
	전문대졸	20(5.7)	25(7.1)	19(5.4)	34(9.7)	13(3.7)	111(31.6)
	대졸	30(8.5)	15(4.3)	24(6.8)	47(13.4)	20(5.7)	136(38.7)
	대학원이상	4(1.1)	1(0.3)	6(1.7)	6(1.7)	3(0.9)	20(5.7)
	기타	-	1(0.3)	5(1.4)	2(0.6)	3(0.9)	11(3.1)
$\chi^2(p)$		31.28*(.012)					
직업	학생	9(2.6)	9(2.6)	21(6.0)	12(3.4)	6(1.7)	57(16.2)
	전업주부	13(3.7)	8(2.3)	11(3.1)	13(3.7)	9(2.6)	54(15.4)
	전문직	24(6.8)	16(4.6)	18(5.1)	29(8.3)	13(3.7)	100(28.5)
	사무직	16(4.6)	8(2.3)	20(5.7)	23(6.6)	9(2.6)	76(21.7)
	판매서비스직	12(3.4)	7(2.0)	5(1.4)	15(4.3)	8(2.3)	47(13.4)
	기타	-	3(0.9)	4(1.1)	9(2.6)	1(0.3)	17(4.8)
$\chi^2(p)$		23.64(.258)					
소득	100만원이하	10(2.8)	9(2.6)	15(4.3)	10(2.8)	7(2.0)	51(14.5)
	100-200만원	34(9.7)	21(6.0)	34(9.7)	45(12.8)	19(5.4)	153(43.6)
	200-300만원	15(4.3)	18(5.1)	18(5.1)	23(6.6)	16(4.6)	90(25.6)
	300만원이상	15(4.3)	3(0.9)	12(3.4)	23(6.6)	4(1.1)	57(16.2)
$\chi^2(p)$		16.41(.173)					
TOTAL		74(21.1)	51(14.5)	79(22.5)	101(28.8)	46(13.1)	351(100.0)

*p<.05

2) 조사대상자의 피부 문제점

조사대상자의 피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구분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민감, 예민한 피부가 각각 19.1%, 12.3%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기미, 주근깨, 검버섯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여드름, 30대의 경우 주름살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모두 문제없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결혼여부로는 모두 민감, 예민한 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미, 주근깨, 검버섯이 민감, 예민한 피부와 동일하게 높게 나왔으며 문제없음이 타 결혼여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여드름이 16.2%로 타 결혼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전체적으로는 민감, 예민한 피부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미, 주근깨, 검버섯 21.9%, 여드름 19.7%, 주름살 11.7%, 피부색 8.8% 문제없음 6.3%순으로 나타났다<표 6>.

김나은(2007)의 연구에서는 색소침착 30.4%, 주름, 노화 18.8%로 조사되었으며 이영애(2012)의 연구에서도 좋은 피부를 가꾸기 위해 피부화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혜원(2009)의 연구에서는 현재 피부 문제점에서는 20대가 “여드름, 넓은 모공”이 34.0%, 30대는 “색소침착”이 37.9%, 40대와 50대는 “주름, 탄력저하”가 각 60.0%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피부의 문제점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피부 문제점 분석결과

구 분	고 민						합계 (%)	
	여드름 (%)	기미 주근깨 검버섯 (%)	민감 예민한 피부 (%)	피부색 (%)	주름살 (%)	문제 없음 (%)		
연령 구분	20대	55(15.7)	46(13.1)	67(19.1)	21(6.0)	15(4.3)	18(5.1)	222(63.2)
	30대	11(3.1)	22(6.3)	43(12.3)	8(2.3)	23(6.6)	4(1.1)	111(31.6)
	40대	3(0.9)	9(2.6)	1(0.3)	2(0.6)	3(0.9)	-	18(5.1)
	$\chi^2(p)$	37.91***(.001)						
결혼 여부	미혼	57(16.2)	45(12.8)	77(21.9)	23(6.6)	26(7.4)	20(5.7)	248(70.7)
	기혼	12(3.4)	30(8.5)	32(9.1)	8(2.3)	15(4.3)	1(0.3)	98(27.9)
	기타	-	2(0.6)	2(0.6)	-	-	1(0.3)	5(1.4)
	$\chi^2(p)$	20.64*(.024)						
최종 학력	고졸	18(5.1)	15(4.3)	16(4.6)	5(1.4)	10(2.8)	9(2.6)	73(20.8)
	전문대졸	16(4.6)	34(9.7)	35(10.0)	12(3.4)	10(2.8)	4(1.1)	111(31.6)
	대졸	26(7.4)	23(6.6)	48(13.7)	12(3.4)	19(5.4)	8(2.3)	136(38.7)
	대학원이상	6(1.7)	2(0.6)	8(2.3)	1(0.3)	2(0.6)	1(0.3)	20(5.7)
	기타	3(0.9)	3(0.9)	4(1.1)	1(0.3)	-	-	11(3.1)
$\chi^2(p)$	24.42(.024)							
직업	학생	16(4.6)	13(3.7)	11(3.1)	6(1.7)	5(1.4)	6(1.7)	57(16.2)
	전업주부	3(0.9)	16(4.6)	19(5.4)	4(1.1)	11(3.1)	1(0.3)	54(15.4)
	전문직	17(4.8)	22(6.3)	37(10.5)	7(2.0)	12(3.4)	5(1.4)	100(28.5)
	사무직	21(6.0)	14(4.0)	25(7.1)	7(2.0)	7(2.0)	2(0.6)	76(21.7)
	판매서비스직	8(2.3)	8(2.3)	15(4.3)	5(1.4)	5(1.4)	6(1.7)	47(13.4)
	기타	4(1.1)	4(1.1)	4(1.1)	2(0.6)	1(0.3)	2(0.6)	17(4.8)
$\chi^2(p)$	32.39(.147)							
소득	100만 원 이하	11(3.1)	17(4.8)	10(2.8)	5(1.4)	3(0.9)	5(1.4)	51(14.5)
	100-200만원	31(8.8)	30(8.5)	50(14.2)	15(4.3)	16(4.6)	11(3.1)	153(43.6)
	200-300만원	16(4.6)	18(5.1)	36(10.3)	4(1.1)	11(3.1)	5(1.4)	90(25.6)
	300만 원 이상	11(3.1)	12(3.4)	15(4.3)	7(2.0)	11(3.1)	1(0.3)	57(16.2)
$\chi^2(p)$	19.36(.198)							
TOTAL	69(19.7)	77(21.9)	111(31.6)	31(8.8)	41(11.7)	22(6.3)	351(100.0)	

*p<.05, ***p<.001

3)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방법

피부관리 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 개인관리가 26.5%, 기혼과 기타의 경우 피부관리실 방문 각각 12.3%,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미혼의 경우 9.4%로 타 결혼여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 < .01$).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전업주부의 경우 피부관리 방문이 각각 11.4,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직업의 경우 개인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소득별로는 100만 원 이하, 100-200만 원 이하의 경우 개인관리가 각각 6.8, 17.7%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의 경우 피부관리 방문이 각각 10.4%, 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피부관리 방문응답률이 높고 낮을수록 개인관리 응답에 높게 나타났다. 없음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5$).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 피부과병원 방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없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전체적으로는 개인관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관리 방문 32.2%, 피부과 병원 방문 20.5%, 없음 12.3%, 기타 0.3%순으로 나타났다<표 7>.

윤소영(2007)의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태도연구 연구에서 대부분 개인관리(76.2%)와 다음으로 피부관리 방문(11.4%)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혜원(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피부관리 방법에 대해 개인관리(47.6%)가 가장 높은 반면 관리하지 않는 경우(22.3%)도 나타났다. 이는 피부관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로 인한 트러블성 피부가, 연령이 높을수록 노화피부가 되지 않기 위한 안티에이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관리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방법 분석결과

구분		방 법					합계 (%)
		피부과 병원 방문 (%)	피부 관리실 방문 (%)	개인 관리 (%)	없음 (%)	기타 (%)	
연령 구분	20대	44(12.5)	58(16.5)	86(24.5)	33(9.4)	1(0.3)	222(63.2)
	30대	25(7.1)	46(13.1)	32(9.1)	8(2.3)	-	111(31.6)
	40대	3(0.9)	9(2.6)	4(1.1)	2(0.6)	-	18(5.1)
		$\chi^2(p)$ 14.75(.064)					
결혼 여부	미혼	54(15.4)	65(18.5)	93(26.5)	35(10.0)	1(0.3)	248(70.7)
	기혼	18(5.1)	43(12.3)	29(8.3)	8(2.3)	-	98(27.9)
	기타	-	5(1.4)	-	-	-	5(1.4)
		$\chi^2(p)$ 21.58**(.006)					
최종 학력	고졸	10(2.8)	14(4.0)	31(8.8)	18(5.1)	-	73(20.8)
	전문대졸	27(7.7)	36(10.3)	36(10.3)	11(3.1)	1(0.3)	111(31.6)
	대졸	29(8.3)	47(13.4)	48(13.7)	12(3.4)	-	136(38.7)
	대학원이상	6(1.7)	11(3.1)	2(0.6)	1(0.3)	-	20(5.7)
	기타	-	5(1.4)	5(1.4)	1(0.3)	-	11(3.1)
		$\chi^2(p)$ 32.93**(.008)					
직업	학생	11(3.1)	12(3.4)	20(5.7)	14(4.0)	-	57(16.2)
	전업주부	9(2.6)	31(8.8)	10(2.8)	4(1.1)	-	54(15.4)
	전문직	22(6.3)	40(11.4)	33(9.4)	5(1.4)	-	100(28.5)
	사무직	18(5.1)	17(4.8)	33(9.4)	8(2.3)	-	76(21.7)
	판매서비스직	9(2.6)	11(3.1)	18(5.1)	8(2.3)	1(0.3)	47(13.4)
	기타	3(0.9)	2(0.6)	8(2.3)	4(1.1)	-	17(4.8)
		$\chi^2(p)$ 49.79***(.001)					
소득	100만원이하	8(2.3)	10(2.8)	24(6.8)	9(2.6)	-	51(14.5)
	100-200만원	32(9.1)	39(11.1)	62(17.7)	19(5.4)	1(0.3)	153(43.6)
	200-300만원	18(5.1)	38(10.8)	23(6.6)	11(3.1)	-	90(25.6)
	300만원이상	14(4.0)	26(7.4)	13(3.7)	4(1.1)	-	57(16.2)
		$\chi^2(p)$ 23.70*(.022)					
TOTAL		72(20.5)	113(32.2)	122(34.8)	43(12.3)	1(0.3)	351(100.0)

*p<.05, **p<.01, ***p<.001

4)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월평균 관리횟수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피부관리 횟수는 몇 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결혼여부로는 미혼과 기혼의 경우 2회가 각각 20.8%,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혼이 미혼보다 월 평균 피부관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최종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 하지 않음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의 경우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전체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부관리 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p<.01$).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1회 5.7%, 학생의 경우 하지 않음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직업은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월 평균 피부관리 횟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전체적으로는 2회의 경우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 24.5%, 3회 17.4%, 하지 않음 15.7%, 4회 8.5%, 5회 이상 4.3%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월평균 관리횟수 분석결과

구 분	횟 수						합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하지 않음 (%)		
연령 구분	20대	57(16.2)	62(17.7)	32(9.1)	17(4.8)	12(3.4)	42(12.0)	222(63.2)
	30대	28(8.0)	35(10.0)	25(7.1)	12(3.4)	2(0.6)	9(2.6)	111(31.6)
	40대	1(0.3)	7(2.0)	4(1.1)	1(0.3)	1(0.3)	4(1.1)	18(5.1)
$\chi^2(p)$		16.135(.096)						
결혼 여부	미혼	67(19.1)	73(20.8)	38(10.8)	19(5.4)	9(2.6)	42(12.0)	248(70.7)
	기혼	19(5.4)	31(8.8)	20(5.7)	9(2.6)	6(1.7)	13(3.7)	98(27.9)
	기타	-	-	3(0.9)	2(0.6)	-	-	5(1.4)
$\chi^2(p)$		19.57*(.034)						
최종 학력	고졸	20(5.7)	13(3.7)	13(3.7)	3(0.9)	2(0.6)	22(6.3)	73(20.8)
	전문대졸	25(7.1)	42(12.0)	18(5.1)	7(2.0)	4(1.1)	15(4.3)	111(31.6)
	대졸	36(10.3)	41(11.7)	22(6.3)	15(4.3)	6(1.7)	16(4.6)	136(38.7)
	대학원이상	3(0.9)	6(1.7)	4(1.1)	5(1.4)	1(0.3)	1(0.3)	20(5.7)
	기타	2(0.6)	2(0.6)	4(1.1)	-	2(0.6)	1(0.3)	11(3.1)
$\chi^2(p)$		39.87**(.005)						
직업	학생	11(3.1)	12(3.4)	11(3.1)	3(0.9)	2(0.6)	18(5.1)	57(16.2)
	전업주부	10(2.8)	17(4.8)	12(3.4)	6(1.7)	4(1.1)	5(1.4)	54(15.4)
	전문직	22(6.3)	37(10.5)	16(4.6)	14(4.0)	4(1.1)	7(2.0)	100(28.5)
	사무직	19(5.4)	21(6.0)	16(4.6)	5(1.4)	2(0.6)	13(3.7)	76(21.7)
	판매서비스직	20(5.7)	11(3.1)	4(1.1)	2(0.6)	1(0.3)	9(2.6)	47(13.4)
	기타	4(1.1)	6(1.7)	2(0.6)	-	2(0.6)	3(0.9)	17(4.8)
$\chi^2(p)$		44.04*(.011)						
소득	100만원이하	6(1.7)	13(3.7)	10(2.8)	4(1.1)	1(0.3)	17(4.8)	51(14.5)
	100-200만원	50(14.2)	49(14.0)	16(4.6)	9(2.6)	7(2.0)	22(6.3)	153(43.6)
	200-300만원	19(5.4)	25(7.1)	22(6.3)	9(2.6)	5(1.4)	10(2.8)	90(25.6)
	300만원이상	11(3.1)	17(4.8)	13(3.7)	8(2.3)	2(0.6)	6(1.7)	57(16.2)
$\chi^2(p)$		34.317**(.003)						
TOTAL		86(24.5)	104(29.6)	61(17.4)	30(8.5)	15(4.3)	55(15.7)	351(100.0)

*p<.05, **p<.01

5)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이유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미혼의 경우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위해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의 경우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미혼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p<.01$).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대학원이상, 기타의 경우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과 대졸의 경우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이상의 경우 피부를 하얗게 하기위해가 1.4%로 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 5.1%로 가장 높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가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 직업의 경우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1$). 전체적으로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의 경우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이 잘 받게 하기 위해 26.2%,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21.7%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이유 분석결과

구분		이유				기타 (%)	합계 (%)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위해 (%)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위해 (%)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		
연령 구분	20대	77(21.9)	69(19.7)	28(8.0)	33(9.4)	15(4.3)	222(63.2)
	30대	36(10.3)	23(6.6)	12(3.4)	33(9.4)	7(2.0)	111(31.6)
	40대	1(0.3)	-	6(1.7)	10(2.8)	1(0.3)	18(5.1)
		$\chi^2(p)$		36.13(.098)			
결혼 여부	미혼	89(25.4)	67(19.1)	29(8.3)	45(12.8)	18(5.1)	248(70.7)
	기혼	25(7.1)	22(6.3)	16(4.6)	30(8.5)	5(1.4)	98(27.9)
	기타	-	3(0.9)	1(0.3)	1(0.3)	-	5(1.4)
		$\chi^2(p)$		13.95*(.043)			
최종 학력	고졸	18(5.1)	21(6.0)	11(3.1)	14(4.0)	9(2.6)	73(20.8)
	전문대졸	43(12.3)	27(7.7)	17(4.8)	20(5.7)	4(1.1)	111(31.6)
	대졸	52(14.8)	29(8.3)	11(3.1)	35(10.0)	9(2.6)	136(38.7)
	대학원이상	1(0.3)	8(2.3)	5(1.4)	5(1.4)	1(0.3)	20(5.7)
	기타	-	7(2.0)	2(0.6)	2(0.6)	-	11(3.1)
		$\chi^2(p)$		34.92**(.004)			
직업	학생	16(4.6)	18(5.1)	9(2.6)	7(2.0)	7(2.0)	57(16.2)
	전업주부	7(2.0)	15(4.3)	8(2.3)	23(6.6)	1(0.3)	54(15.4)
	전문직	39(11.1)	23(6.6)	13(3.7)	21(6.0)	4(1.1)	100(28.5)
	사무직	30(8.5)	20(5.7)	7(2.0)	13(3.7)	6(1.7)	76(21.7)
	판매서비스직	15(4.3)	11(3.1)	8(2.3)	11(3.1)	2(0.6)	47(13.4)
	기타	7(2.0)	5(1.4)	1(0.3)	1(0.3)	3(0.9)	17(4.8)
		$\chi^2(p)$		38.81**(.007)			
소득	100만원이하	15(4.3)	17(4.8)	9(2.6)	6(1.7)	4(1.1)	51(14.5)
	100-200만원	58(16.5)	42(12.0)	17(4.8)	27(7.7)	9(2.6)	153(43.6)
	200-300만원	28(8.0)	24(6.8)	11(3.1)	22(6.3)	5(1.4)	90(25.6)
	300만원이상	13(3.7)	9(2.6)	9(2.6)	21(6.0)	5(1.4)	57(16.2)
		$\chi^2(p)$		18.94(.090)			
TOTAL		114(32.5)	92(26.2)	46(13.1)	76(21.7)	23(6.6)	351(100.0)

*p<.05, **p<.01

6)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지출비용

피부관리 월 지출비용에 관하여 살펴 본 결과 연령별로는 20대 11.95만원에 비해 30대 23.02만원, 40대 21.77만원으로 30대와 40대의 지출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일수록 지출비용이 높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최종학력으로는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학력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비용이 높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6.3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가 22.6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 21.65만원, 사무직 14.19만원, 판매서비스직 12.8만원, 기타 10.05만원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소득별로는 200만원이상그룹이 200만원이하그룹보다 평균 지출비용이 높게 나타나 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10>.

차혜림(2012)의 미용과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피부관리에 대한 월 지출비용에서는 10만원이하(164명, 29.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수빈(2008)의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5만원 이하를 피부관리에 투자 하는 여성이 54.3%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과 학력 및 소득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에 대한 지출비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지출비용 분석결과

	구분	N	지출비용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a)	222	11.95	14.66	17.220*** (.001)	b,c>a
	30대(b)	111	23.02	20.25		
	40대(c)	18	21.77	18.17		
최종 학력	고졸(a)	73	9.54	12.07	7.900*** (.001)	d>c,b,e> a
	전문대졸(b)	111	14.39	16.09		
	대졸(c)	136	19.02	18.30		
	대학원이상(d)	20	30.30	26.57		
	기타(e)	11	10.18	11.30		
직업	학생(a)	57	6.35	7.74	8.789*** (.001)	c,b>d,e,f> a
	전업주부(b)	54	22.62	20.30		
	전문직(c)	100	21.65	21.82		
	사무직(d)	76	14.19	14.33		
	판매서비스직(e)	47	12.80	12.34		
	기타(f)	17	10.05	7.74		
소득	100만원이하	51	7.92	11.04	17.325*** (.001)	d,c>b,a
	100-200만원	153	11.80	14.29		
	200-300만원	90	21.33	18.84		
	300만원이상	57	25.80	21.17		
TOTAL		351	15.95	17.56	-	-

***p<.001

5. 미용관리 행동

1) 조사대상자의 미용관리 인식도

미용관리행동(인식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별로는 200-300만 원 이하의 경우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 2.98점, 100-200만 원 이하 2.80점 100만 원 이하 2.55점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연령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게는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평균 2.84점으로 미용관리행동(인식도)이 낮게 나타났다<표 11>.

손현진(2008)은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력에 따라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교육수준과 직업의 유무에 따라 자아표현 즉 외적인 아름다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분석결과

	구 분	N	인식도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2.78	.86	2.47 (.086)	-
	30대	111	2.98	.74		
	40대	18	3.00	.69		
최종 학력	고졸	73	2.88	.90	1.92(.107)	-
	전문대졸	111	2.76	.87		
	대졸	136	2.87	.74		
	대학원이상	20	3.30	.80		
	기타	11	2.82	.60		
직업	학생(a)	57	2.72	.77	.833(.527)	-
	전업주부(b)	54	2.87	.75		
	전문직(c)	100	2.88	.95		
	사무직(d)	76	2.86	.67		
	판매서비스직(e)	47	3.02	.85		
	기타(f)	17	2.71	.92		
소득	100만원이하(a)	51	2.55	.86	4.78**(.003)	c,d>b,a
	100-200만원(b)	153	2.80	.80		
	200-300만원(c)	90	3.04	.76		
	300만원이상(d)	57	2.98	.83		
TOTAL		351	2.84	.76	-	-

**p<.01

2) 조사대상자의 헤어스타일과 외모관리의 상관성

헤어스타일이 사람의 인상·스타일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기타 4.12, 판매서비스직 4.04의 상위 그룹과 전문직 3.98, 사무직 3.96의 중간그룹, 학생과 전업주부 3.46점 하위 그룹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연령, 최종학력,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평균 3.83점으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12>.

한편 차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의 변화시기에서는 헤어스타일 정리를 위해서(215명, 39%)와 계절의 변화(188명, 34.1%)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정희(2005)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은 계절의 변화 (45.1%)와 지저분해서(29.5%)로 보고하였으며 김향원(2011)은 기분전환(14.7%)과 정기적인 방문(30.6%) 이와 같은 결과는 헤어스타일이 외모관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 번씩 헤어스타일 정리를 통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헤어스타일과 외모관리의 인식 분석결과

구분	N	역할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구분	20대	222	3.80	.82	.294(.745)	-
	30대	111	3.87	.78		
	40대	18	3.83	.86		
최종학력	고졸	73	3.64	.87	3.295(.011)	-
	전문대졸	111	3.84	.77		
	대졸	136	3.96	.74		
	대학원이상	20	3.80	1.01		
	기타	11	3.27	.79		
직업	학생(a)	57	3.46	.89	7.470***(.001)	f,e>c,d> a,b
	전업주부(b)	54	3.46	.82		
	전문직(c)	100	3.98	.78		
	사무직(d)	76	3.96	.70		
	판매서비스직(e)	47	4.04	.69		
	기타(f)	17	4.12	.70		
소득	100만원이하	51	3.65	.91	1.079(.358)	-
	100-200만원	153	3.86	.75		
	200-300만원	90	3.82	.80		
	300만원이상	57	3.89	.86		
TOTAL	351	3.83	.81	-	-	

***p<.001

3)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지식과 정보의 관심도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은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원이상 3.75점, 전문대졸 3.45점, 고졸과 ,대졸자 3.38점, 3.33점, 기타 2.82점순으로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자와 전문대졸업자가 높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연령, 직업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평균 3.38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다<표 13>.

김현주(2011)의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실태 연구에서도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5점으로 피부관리 지식과 정보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건강한 피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영역으로 피부가 지닌 기능을 가능한 한 완전히 유지시켜 아름답고 피부를 가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지식과 정보 관심도 차이 분석결과

구 분	N	정보에 관심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구분	20대	222	3.32	.84	2.108(.123)	-
	30대	111	3.51	.72		
	40대	18	3.39	.85		
최종학력	고졸(a)	73	3.38	.83	2.739*(.029)	d>b>a,c >e
	전문대졸(b)	111	3.45	.72		
	대졸(c)	136	3.33	.84		
	대학원이상(d)	20	3.75	.79		
	기타(e)	11	2.82	.87		
직업	학생	57	3.27	.80	1.647(.147)	-
	전업주부	54	3.33	.75		
	전문직	100	3.55	.86		
	사무직	76	3.28	.80		
	판매서비스직	47	3.31	.73		
	기타	17	3.59	.87		
소득	100만원이하(a)	51	3.38	.88	5.130** (.002)	d,c>a>b
	100-200만원(b)	153	3.21	.76		
	200-300만원(c)	90	3.56	.81		
	300만원이상(d)	57	3.59	.78		
TOTAL	351	3.38	.81	-	-	

*p<.05, **p<.01

4) 조사대상자의 외모 콤플렉스

외모문제로 인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열등감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경우 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 소득별로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평균 3.07로 피부문제로 인한 열등감이나 고민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조사대상자의 외모 콤플렉스 분석결과

구 분	N	열등감이나 고민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구분	20대	222	3.14	.88	2.583(.077)	-
	30대	111	2.98	.86		
	40대	18	2.72	.96		
최종학력	고졸	73	2.95	.78	1.272(.281)	-
	전문대졸	111	3.21	.84		
	대졸	136	3.01	.90		
	대학원이상	20	3.15	1.14		
	기타	11	3.00	1.10		
직업	학생	57	3.02	.83	.207(.960)	-
	전업주부	54	3.04	.80		
	전문직	100	3.06	.96		
	사무직	76	3.13	.90		
	판매서비스직	47	3.02	.90		
	기타	17	3.18	.73		
소득	100만원이하	51	3.18	.93	.896(.443)	-
	100-200만원	153	3.02	.89		
	200-300만원	90	3.14	.80		
	300만원이상	57	2.96	.93		
TOTAL	351	3.07	.88	-	-	

5) 조사대상자의 화장품선택의 적합성

조사대상자들의 피부유형에 맞는 화장품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3.88, 판매서비스직 3.81, 사무직 3.72의 중간그룹 전업주부 3.56, 학생 3.46 하위그룹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연령 구분, 최종학력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평균 3.74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조사대상자의 화장품선택의 적합성 분석결과

	구분	N	화장품 · 세안제품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3.73	.77	.146(.864)	-
	30대	111	3.72	.85		
	40대	18	3.83	.86		
최종 학력	고졸	73	3.71	.77	.701(.592)	-
	전문대졸	111	3.70	.82		
	대졸	136	3.79	.80		
	대학원이상	20	3.80	.70		
직업	기타	11	3.40	.97	3.453**(.005)	c>f,e,d> b,a
	학생(a)	57	3.46	.71		
	전업주부(b)	54	3.56	.86		
	전문직(c)	100	3.94	.79		
	사무직(d)	76	3.72	.70		
	판매서비스직(e)	47	3.81	.77		
소득	기타(f)	17	3.88	1.02	3.297*(.021)	d>b,c>a
	100만원이하(a)	51	3.49	.77		
	100-200만원(b)	153	3.71	.77		
	200-300만원(c)	90	3.77	.82		
	300만원이상(d)	57	3.96	.80		
	TOTAL	351	3.74	.80	-	-

* $p < .05$, ** $p < .01$

6) 조사대상자의 기능성화장품의 지속사용

기능성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20대 3.41, 30대 3.68, 40대 3.83으로 연령대비 사용이 높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직업별로는 전문직 3.70, 서비스직 3.65의 상위그룹, 판매서비스직 3.65, 전업주부 3.52, 사무직과 기타 3.47의 중간그룹, 학생 3.16의 하위그룹 순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소득별로는 300만 원 이상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전체평균 3.52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6>. 백연순(2013)의 기능성화장품의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직이 3.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가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에서 20대 3.41점, 30대 3.68점, 40대 3.83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p < .01$), 백연순(2013)의 보고에서는 전체 평균 3.21점으로 20대, 30대 > 40대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표 16> 조사대상자의 기능성화장품의 지속사용 분석결과

	구 분	N	기능성 화장품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a)	222	3.41	.86	5.03**(.007)	c>b>a
	30대(b)	111	3.68	.78		
	40대(c)	18	3.83	.99		
최종 학력	고졸	73	3.37	.83	1.543(.189)	-
	전문대졸	111	3.53	.85		
	대졸	136	3.52	.88		
	대학원이상	20	3.89	.81		
	기타	11	3.64	.67		
직업	학생(a)	57	3.16	.92	3.287**(.006)	c,e>b,d,f >a
	전업주부(b)	54	3.52	.86		
	전문직(c)	100	3.70	.91		
	사무직(d)	76	3.47	.72		
	판매서비스직(e)	47	3.65	.74		
	기타(f)	17	3.47	.80		
소득	100만원이하(a)	51	3.16	.95	5.857*** (.001)	d>c,b>a
	100-200만원(b)	153	3.49	.85		
	200-300만원(c)	90	3.56	.81		
	300만원이상(d)	57	3.82	.73		
	TOTAL	351	3.52	.85	-	-

p<.01, *p<.001

7) 조사대상자의 어울리는 화장법 사용

조사대상자들의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의 경우 2.94로 낮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200만원 이상 소득자와 이하 소득자간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전체평균 3.23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표 17>.

한편 차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세련되고 지적 이미지의 추구였으며, 윤소영(2007)은 자연적이고 청순한 이미지를 선호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표 17> 조사대상자의 어울리는 화장법 사용 분석결과

	구분	N	올바른 화장법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3.21	.85	.195(.823)	-
	30대	111	3.24	.79		
	40대	18	3.33	.77		
최종 학력	고졸	73	3.14	.92	1.728(.143)	-
	전문대졸	111	3.38	.82		
	대졸	136	3.13	.76		
	대학원이상	20	3.30	.86		
	기타	11	3.30	.82		
직업	학생	57	2.96	.94	2.035(.073)	-
	전업주부	54	3.26	.81		
	전문직	100	3.39	.82		
	사무직	76	3.18	.80		
	판매서비스직	47	3.18	.81		
	기타	17	3.29	.59		
소득	100만원이하(a)	51	2.94	1.00	4.189**(.006)	d,c>b,a
	100-200만원(b)	153	3.16	.74		
	200-300만원(c)	90	3.36	.85		
	300만원이상(d)	57	3.43	.78		
TOTAL		351	3.23	.83	-	-

** $p < .01$

8)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에 지식과 정보의 관심

외모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은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최종학력 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3.68, 전문대졸 3.58의 상위그룹, 고졸 3.37, 대졸 3.36의 중간그룹과 기타 2.91의 하위그룹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3.59, 전업주부 3.57, 판매서비스직 3.55, 기타 3.53의 상위그룹과 사무직 3.25, 학생 3.15의 하위그룹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전체평균 3.42로 화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Rudd 등(2000)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신적·물질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모관리가 이 시대가 만든 미적 기대치를 부응하기 위함이고 외모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18>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에 지식과 정보의 관심 분석결과

	구분	N	정보에 관심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3.40	.84	.577 (.562)	-
	30대	111	3.46	.91		
	40대	18	3.61	.78		
최종 학력	고졸(a)	73	3.37	.92	2.600*(.036)	d,b>a,c>e
	전문대졸(b)	111	3.58	.74		
	대졸(c)	136	3.36	.86		
	대학원이상(d)	20	3.68	1.06		
	기타(e)	11	2.91	.94		
직업	학생(a)	57	3.15	.91	3.175**(.008)	c,b,e,f>d,a
	전업주부(b)	54	3.57	.75		
	전문직(c)	100	3.59	.95		
	사무직(d)	76	3.25	.77		
	판매서비스직(e)	47	3.55	.72		
	기타(f)	17	3.53	.87		
소득	100만원이하	51	3.27	.88	2.690(.052)	-
	100-200만원	153	3.35	.82		
	200-300만원	90	3.56	.91		
	300만원이상	57	3.61	.82		
TOTAL		351	3.43	.86	-	-

*p<.05, **p<.01

9) 조사대상자의 다이어트 경험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2.97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표 19>. 이는 이경숙(2007)의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의 연구에서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 에서 3.91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피부관리와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9> 조사대상자의 다이어트 경험 분석결과

	구 분	N	경험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a)	222	3.05	1.03	3.283 (.129)	-
	30대(b)	111	2.91	.99		
	40대(c)	18	2.44	1.04		
최종 학력	고졸(a)	73	3.01	.95	3.21 (.073)	-
	전문대졸(b)	111	3.20	1.01		
	대졸(c)	136	2.76	1.01		
	대학원이상(d)	20	3.15	1.18		
	기타(e)	11	2.82	1.08		
직업	학생	57	2.91	1.10	.593(.703)	-
	전업주부	54	3.13	1.01		
	전문직	100	2.95	1.06		
	사무직	76	2.92	.93		
	판매서비스직	47	3.09	1.00		
	기타	17	2.76	1.09		
소득	100만원이하	51	2.90	1.15	.720(.540)	-
	100-200만원	153	2.99	.98		
	200-300만원	90	3.08	1.02		
	300만원이상	57	2.84	1.01		
TOTAL		351	2.97	1.02	-	-

10) 조사대상자의 다이어트식품 구매경험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기타 3.59, 전업주부 3.54의 상위그룹, 전문직 3.42, 학생 3.33의 중간그룹, 사무직 3.29, 판매서비스직 3.22순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p<.05$).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3.57, 300만원 이상 3.52의 상위그룹, 100-200만원 3.29, 100만원 이하 3.24의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전체평균 3.13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표 20>.

<표 20> 조사대상자의 다이어트식품 구매경험 분석결과

구분	구분	N	경험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3.35	1.00	.431(.605)	-
	30대	111	3.41	.94		
	40대	18	3.56	1.20		
최종 학력	고졸	73	3.59	.97	1.543(.189)	-
	전문대졸	111	3.28	.96		
	대졸	136	3.30	.96		
	대학원이상	20	3.55	1.32		
	기타	11	3.55	.82		
직업	학생(a)	57	3.33	1.02	.728*(.041)	f,b,>c,a>d,e
	전업주부(b)	54	3.54	.95		
	전문직(c)	100	3.42	1.00		
	사무직(d)	76	3.29	.96		
	판매서비스직(e)	47	3.22	1.03		
	기타(f)	17	3.59	.94		
소득	100만원이하(a)	51	3.29	1.10	2.211*(.039)	c,d>a,b
	100-200만원(b)	153	3.24	.96		
	200-300만원(c)	90	3.57	.92		
	300만원이상(d)	57	3.52	1.01		
TOTAL		351	3.38	.99	-	-

* $p<.05$

11) 조사대상자의 체형보정복의 착용

체형을 위해 보정속옷(올인원, 코르셋 등)을 입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3.57로 상위그룹, 전문직 3.19, 사무직 3.04, 학생 2.96의 중간그룹, 기타 2.94, 판매서비스직 2.89의 하위그룹순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소득별로는 300만원이상 3.26, 200-300만원 3.39의 상위그룹, 100만원이하 2.96, 100-200만원 2.98순으로 나타났다($p < .05$). 전체평균 2.81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21>.

<표 21> 조사대상자의 체형보정복의 착용 분석결과

구분	구분	N	보정속옷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3.09	1.16	1.462(.233)	-
	30대	111	3.14	1.04		
	40대	18	3.56	1.15		
최종 학력	고졸	73	3.24	1.14	1.317(.263)	-
	전문대졸	111	3.12	1.11		
	대졸	136	3.01	1.10		
	대학원이상	20	3.35	1.39		
	기타	11	3.64	.67		
직업	학생(a)	57	2.96	1.15	2.648*(.023)	b>c,d,a> f,e
	전업주부(b)	54	3.57	.92		
	전문직(c)	100	3.19	1.13		
	사무직(d)	76	3.04	1.13		
	판매서비스직(e)	47	2.89	1.13		
	기타(f)	17	2.94	1.30		
소득	100만원이하(a)	51	2.96	1.21	3.188*(.024)	c,d>b,a
	100-200만원(b)	153	2.98	1.09		
	200-300만원(c)	90	3.39	1.00		
	300만원이상(d)	57	3.26	1.26		
TOTAL		351	3.13	1.13	-	-

* $p < .05$

12) 조사대상자의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 실태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부 관리 방법으로는 건성과 복합성, 민감성의 경우 개인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 지성의 경우 피부 관리실 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개인관리, 피부 관리실 방문, 피부과 병원방문, 없음,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피부 관리 횟수로는 건성, 중성, 지성의 경우 2회가 가장 높았으며 복합성의 경우 1회, 민감성의 경우 1회와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성과 건성의 경우 하지 않음이 타 피부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회, 1회, 3회, 하지 않음, 4회, 5회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건성의 경우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가 타 피부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중성의 경우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위해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성, 복합성의 경우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위해가 각각 8.8%,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감성의 경우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와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의 경우 타 피부타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피부를 부드럽고 윤택하게 하기위해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 26.3%,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21.7%,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13.1%, 기타 6.6%순으로 나타났다($p < .01$) <표 22>.

<표 22> 조사대상자의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 실태 분석결과

구 분	피부타입					합계 (%)	
	건성 (%)	중성 (%)	지성 (%)	복합성 (%)	민감성 (%)		
피부 관리 방법	피부과 병원 방문	19(5.4)	6(1.7)	16(4.6)	21(6.0)	10(2.8)	72(20.5)
	피부 관리실 방문	18(5.1)	21(6.0)	28(8.0)	34(9.7)	12(3.4)	113(32.2)
	개인관리	28(8.0)	17(4.8)	19(5.4)	40(11.4)	18(5.1)	122(34.8)
	없음	8(2.3)	7(2.0)	16(4.6)	6(1.7)	6(1.7)	43(12.3)
	기타	1(0.3)	-	-	-	-	1(0.3)
	χ^2	21.634(.155)					
월 평균 피부 관리 횟수	1회	21(6.0)	5(1.4)	13(3.7)	33(9.4)	14(4.0)	86(24.5)
	2회	22(6.3)	20(5.7)	19(5.4)	29(8.3)	14(4.0)	104(29.6)
	3회	8(2.3)	8(2.3)	16(4.6)	20(5.7)	9(2.6)	61(17.4)
	4회	6(1.7)	5(1.4)	10(2.8)	7(2.0)	2(0.6)	30(8.5)
	5회 이상	2(0.6)	4(1.1)	4(1.1)	3(0.9)	2(0.6)	15(4.3)
	하지 않음	15(4.3)	9(2.6)	17(4.8)	9(2.6)	5(1.4)	55(15.7)
χ^2	27.535(.121)						
피부 관리 를 하는 이유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20(5.7)	11(3.1)	31(8.8)	37(10.5)	15(4.3)	114(32.5)
	화장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	14(4.0)	17(4.8)	23(6.6)	23(6.6)	15(4.3)	92(26.2)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10(2.8)	9(2.6)	12(3.4)	14(4.0)	1(0.3)	46(13.1)
	피부노화를 방지 하기 위해	28(8.0)	11(3.1)	9(2.6)	20(5.7)	8(2.3)	76(21.7)
	기타	2(0.6)	3(0.9)	4(1.1)	7(2.0)	7(2.0)	23(6.6)
χ^2	34.032**(.005)						
TOTAL	74(21.1)	51(14.5)	79(22.5)	101(28.8)	46(13.1)	351(100.0)	

**p<.01

6. 제모관리 행동

1)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최초시기

첫 제모를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 20.95, 30대 25.03, 40대 26.50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시작한 나이가 어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 6.12 로 가장 높고 기타 그룹은 4점대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5.48, 판매서비스직 5.31의 상위그룹, 전문직 4.82, 사무직 4.65의 중간그룹 기타 3.94, 학생 3.47의 하위그룹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소득별로는 300만원이상 24.26, 200-300만원 23.67의 상위그룹, 100-200만원이하 21.84, 100만원이하 20.55의 하위그룹순으로 제모를 시작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타나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표 23>.

제모관리는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에서 비롯되는데,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Kaiser, 1990). 또한 정신적·물질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Rudd 등, 2000).

<표 23>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최초시기 분석결과

	구 분	N	시작한 나이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a)	222	20.95	3.80	37.80***(.000)	c>b>a
	30대(b)	111	25.03	4.95		
	40대(c)	18	26.50	7.95		
최종 학력	고졸(a)	73	20.58	4.33	5.898***(.000)	d>c,b,a,e
	전문대졸(b)	111	22.43	4.83		
	대졸(c)	136	23.51	4.83		
	대학원이상(d)	20	24.63	6.12		
	기타(e)	11	20.45	4.20		
직업	학생(a)	57	19.40	3.47	6.581***(.000)	b,e>c,d> f>a
	전업주부(b)	54	24.07	5.48		
	전문직(c)	100	23.06	4.82		
	사무직(d)	76	23.04	4.65		
	판매서비스직(e)	47	22.70	5.31		
	기타(f)	17	22.06	3.94		
소득	100만원이하(a)	51	20.55	4.42	8.171***(.000)	c,d>b,a
	100-200만원(b)	153	21.84	4.67		
	200-300만원(c)	90	23.67	4.13		
	300만원이상(d)	57	24.26	6.12		
TOTAL		351	22.52	4.92	-	-

***p<.001

2)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기간

제모를 한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40대 8.12, 30대 6.00, 20대 3.73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매우 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최종학력별로도 대학원이상 6.17의 최상위그룹과 고졸 3.33, 기타3.29의 최하위그룹 순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직업별로는 기타 5.92, 전문직 5.77의 최상위그룹과 학생 2.83의 최하위 그룹으로 매우 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소득별로는 300만원원 이상 6.18의 최상위그룹, 100만 원 이하 3.49의 최하위그룹 순으로 매우 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제모 기간은 전체평균 4.73으로 나타났다<표 24>.

<표 24>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기간 분석결과

	구 분	N	기간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a)	222	3.73	2.76	16.307***(.000)	c>b>a
	30대(b)	111	6.00	4.83		
	40대(c)	18	8.12	7.12		
최종 학력	고졸(a)	73	3.33	2.80	3.552**(.008)	d>c>b>a,e
	전문대졸(b)	111	4.57	4.19		
	대졸(c)	136	5.48	4.45		
	대학원이상(d)	20	6.17	4.62		
	기타(e)	11	3.29	2.06		
직업	학생(a)	57	2.83	1.79	3.433**(.005)	f,c>b>d,e>a
	전업주부(b)	54	5.00	4.76		
	전문직(c)	100	5.77	4.56		
	사무직(d)	76	4.31	3.25		
	판매서비스직(e)	47	4.49	3.31		
	기타(f)	17	5.92	7.15		
소득	100만원이하(a)	51	3.49	3.09	4.237**(.006)	d>b>c>a
	100-200만원(b)	153	4.94	4.39		
	200-300만원(c)	90	4.00	3.44		
	300만원이상(d)	57	6.18	4.55		
	TOTAL	351	4.73	4.10	-	-

p<.01, *<.001

3)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선택부위

제모를 주로 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겨드랑이가 가장 높았으며 결혼 여부와도 상관없이 겨드랑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관계없이 겨드랑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의 경우 브라질리언이 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의 경우 다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직업의 경우 모두 겨드랑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다리가 가장 높았으며 타 소득의 경우 겨드랑이가 자아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겨드랑이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리 28.5%, 팔 13.4%, 브라질리언 13.1%, 안면윤곽 6.6%, 비키니라인 2.8%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중세시대의 많은 예술작품 속에 여성의 신체가 털 한 올 없이 매끄럽게 표현되었으며(윤초희, 2010), 미용 목적으로 로마의 귀족부인들은 콧속 털까지 포함해 전신의 털을 제모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이수근, 2011). 또한 여성들은 그 당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던 페일 룩(pale look)과 넓은 이마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눈썹과 이마, 헤어라인의 털을 뽑아왔다(Victoria sherrow, 2006). 그러므로 제모관리는 고대부터 미용행동 관리의 한 분야로 현재까지 전수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조사대상자의 체모관리 선택부위 분석결과

구분	안면 윤각 (%)	팔 (%)	다리 (%)	겨드 랑이 (%)	비키니 라인 (%)	브라질 리언 (%)	합계 (%)	
연령 구분	20대	17(4.8)	38(10.8)	61(17.4)	72(20.5)	7(2.0)	27(7.7)	222(63.2)
	30대	5(1.4)	9(2.6)	37(10.5)	41(11.7)	2(0.6)	17(4.8)	111(31.6)
	40대	1(0.3)	-	2(0.6)	12(3.4)	1(0.3)	2(0.6)	18(5.1)
	$\chi^2(p)$	18.220(.051)						
결혼 여부	미혼	17(4.8)	35(10.0)	68(19.4)	87(24.8)	8(2.3)	33(9.4)	248(70.7)
	기혼	6(1.7)	11(3.1)	32(9.1)	35(10.0)	2(0.6)	12(3.4)	98(27.9)
	기타	-	1(0.3)	-	3(0.9)	-	1(0.3)	5(1.4)
	$\chi^2(p)$	4.70(.910)						
최종 학력	고졸	7(2.0)	14(4.0)	18(5.1)	27(7.7)	3(0.9)	4(1.1)	73(20.8)
	전문대졸	8(2.3)	16(4.6)	31(8.8)	38(10.8)	3(0.9)	15(4.3)	111(31.6)
	대졸	6(1.7)	13(3.7)	42(12.0)	47(13.4)	4(1.1)	24(6.8)	136(38.7)
	대학원이상	2(0.6)	2(0.6)	6(1.7)	8(2.3)	-	2(0.6)	20(5.7)
	기타	-	2(0.6)	3(0.9)	5(1.4)	-	1(0.3)	11(3.1)
$\chi^2(p)$	15.10(.770)							
직업	학생	5(1.4)	11(3.1)	19(5.4)	18(5.1)	1(0.3)	3(0.9)	57(16.2)
	전업주부	3(0.9)	8(2.3)	18(5.1)	20(5.7)	-	5(1.4)	54(15.4)
	전문직	8(2.3)	14(4.0)	24(6.8)	37(10.5)	2(0.6)	15(4.3)	100(28.5)
	사무직	6(1.7)	11(3.1)	23(6.6)	17(4.8)	4(1.1)	15(4.3)	76(21.7)
	판매서비스직	1(0.3)	2(0.6)	13(3.7)	24(6.8)	2(0.6)	5(1.4)	47(13.4)
	기타	-	1(0.3)	3(0.9)	9(2.6)	1(0.3)	3(0.9)	17(4.8)
χ^2	31.01(.189)							
소득	100만원이하	3(0.9)	9(2.6)	18(5.1)	16(4.6)	2(0.6)	3(0.9)	51(14.5)
	100-200만원	9(2.6)	19(5.4)	46(13.1)	54(15.4)	4(1.1)	21(6.0)	153(43.6)
	200-300만원	8(2.3)	14(4.0)	22(6.3)	28(8.0)	3(0.9)	15(4.3)	90(25.6)
	300만원이상	3(0.9)	5(1.4)	14(4.0)	27(7.7)	1(0.3)	7(2.0)	57(16.2)
χ^2	11.354(.727)							
TOTAL	23(6.6)	47(13.4)	100(28.5)	125(35.6)	10(2.8)	46(13.1)	351(100.0)	

4)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의 인지

제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인터넷, 30대와 40대의 경우 주위의 권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주위의 권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 주위의 권유로, 대학원이상과 기타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전업주부, 사무직, 기타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주위의 권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200-300만 원 이하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높았으며 타 소득의 경우 주위의 권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주위의 권유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32.2%, 기타 14.2%, 매스미디어 13.1%, 광고지 3.7%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제모관리의 경우 단순한 주위의 결과나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의존해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사용법과 피부의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모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제모를 할 경우, 피부 유형들의 특성에 따라 팜셈 기능의 증감이나, 혈액순환 상태, 피부의 두께, 피부색 등이 피부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피부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관리법을 이해하여 제모관리 시 적용하여야 한다.

<표 26>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의 인지 분석결과

	구 분	주위의 권유로 (%)	인터넷 (%)	매스 미디어 (%)	광고지 (%)	기타 (%)	합계 (%)
연령 구분	20대	74(21.1)	75(21.4)	31(8.8)	8(2.3)	34(9.7)	222(63.2)
	30대	44(12.5)	36(10.3)	13(3.7)	4(1.1)	14(4.0)	111(31.6)
	40대	11(3.1)	2(0.6)	2(0.6)	1(0.3)	2(0.6)	18(5.1)
	$\chi^2(p)$	7.555(.478)					
결혼 여부	미혼	94(26.8)	79(22.5)	32(9.1)	8(2.3)	35(10.0)	248(70.7)
	기혼	33(9.4)	32(9.1)	13(3.7)	5(1.4)	15(4.3)	98(27.9)
	기타	2(0.6)	2(0.6)	1(0.3)	-	-	5(1.4)
	$\chi^2(p)$	2.306(.970)					
최종 학력	고졸	26(7.4)	20(5.7)	11(3.1)	2(0.6)	14(4.0)	73(20.8)
	전문대졸	38(10.8)	40(11.4)	15(4.3)	4(1.1)	14(4.0)	111(31.6)
	대졸	56(16.0)	38(10.8)	19(5.4)	6(1.7)	17(4.8)	136(38.7)
	대학원이상	7(2.0)	8(2.3)	1(0.3)	1(0.3)	3(0.9)	20(5.7)
	기타	2(0.6)	7(2.0)	-	-	2(0.6)	11(3.1)
$\chi^2(p)$	13.034(.670)						
직업	학생	21(6.0)	20(5.7)	5(1.4)	3(0.9)	8(2.3)	57(16.2)
	전업주부	16(4.6)	22(6.3)	8(2.3)	3(0.9)	5(1.4)	54(15.4)
	전문직	42(12.0)	27(7.7)	12(3.4)	1(0.3)	18(5.1)	100(28.5)
	사무직	25(7.1)	27(7.7)	12(3.4)	3(0.9)	9(2.6)	76(21.7)
	판매서비스직	20(5.7)	10(2.8)	7(2.0)	3(0.9)	7(2.0)	47(13.4)
	기타	5(1.4)	7(2.0)	2(0.6)	-	3(0.9)	17(4.8)
χ^2	15.503(.747)						
소득	100만원이하	20(5.7)	18(5.1)	4(1.1)	1(0.3)	8(2.3)	51(14.5)
	100-200만원	57(16.2)	44(12.5)	25(7.1)	5(1.4)	22(6.3)	153(43.6)
	200-300만원	32(9.1)	36(10.3)	12(3.4)	3(0.9)	7(2.0)	90(25.6)
	300만원이상	20(5.7)	15(4.3)	5(1.4)	4(1.1)	13(3.7)	57(16.2)
χ^2	14.193(.289)						
TOTAL		129(36.8)	113(32.2)	46(13.1)	13(3.7)	50(14.2)	351(100.0)

5)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방법

제모의 방법 중 자주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면도가 가장 높았으며 결혼여부로는 미혼과 기혼의 경우 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전문 관리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기타의 경우 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면도와 전문 관리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과 관계없이 면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소득과도 관계없이 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면도 42.5%, 전문 관리실 30.2%, 레이저 11.1%, 화장품 10%, 제모기 5.7%, 스트립 제모 0.6%순으로 나타났다<표 27>.

제모관리 방법의 경우 레이저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시작되었으며(이 나영, 2005), 1990년대 중반 미국 식품 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보편화 되었고 IPL과 같은 영구제모기술도 등장하여 현재 남성들도 IPL 수염제모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다(Italy Rica company).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제모는 면도기를 이용하여 얼굴이나, 팔, 음모관리를 제외한 다리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하는 셀프제모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제모관리는 뿌리에서부터 털을 제거하는 waxing의 개발로 눈썹, 얼굴, 비키니라인, 다리, 팔, 등, 복부 그리고 발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의 일부분들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왁싱 서비스를 위해 샵을 방문한다(Victoria Sherrow, 2006).

<표 27> 조사대상자의 제모관리 방법 분석결과

구분	면도 (%)	화장품 (%)	전문 관리실 (%)	레이저 (%)	제모기 (%)	스트립 제모 (%)	합계 (%)	
연령 구분	20대	97(27.6)	21(6.0)	66(18.8)	26(7.4)	11(3.1)	1(0.3)	222(63.2)
	30대	45(12.8)	11(3.1)	35(10.0)	13(3.7)	6(1.7)	1(0.3)	111(31.6)
	40대	7(2.0)	3(0.9)	5(1.4)	-	3(0.9)	-	18(5.1)
$\chi^2(p)$				7.72(.656)				
결혼 여부	미혼	111(31.6)	21(6.0)	75(21.4)	28(8.0)	12(3.4)	1(0.3)	248(70.7)
	기혼	38(10.8)	13(3.7)	28(8.0)	10(2.8)	8(2.3)	1(0.3)	98(27.9)
	기타	-	1(0.3)	3(0.9)	1(0.3)	-	-	5(1.4)
$\chi^2(p)$				9.020(.530)				
최종 학력	고졸	29(8.3)	11(3.1)	16(4.6)	9(2.6)	8(2.3)	-	73(20.8)
	전문대졸	54(15.4)	8(2.3)	31(8.8)	11(3.1)	7(2.0)	-	111(31.6)
	대졸	53(15.1)	15(4.3)	49(14.0)	14(4.0)	3(0.9)	2(0.6)	136(38.7)
	대학원이상	7(2.0)	-	7(2.0)	5(1.4)	1(0.3)	-	20(5.7)
	기타	6(1.7)	1(0.3)	3(0.9)	-	1(0.3)	-	11(3.1)
$\chi^2(p)$				25.578(.180)				
직업	학생	22(6.3)	7(2.0)	18(5.1)	6(1.7)	4(1.1)	-	57(16.2)
	전업주부	19(5.4)	9(2.6)	10(2.8)	8(2.3)	8(2.3)	-	54(15.4)
	전문직	39(11.1)	11(3.1)	32(9.1)	13(3.7)	3(0.9)	2(0.6)	100(28.5)
	사무직	32(9.1)	5(1.4)	29(8.3)	7(2.0)	3(0.9)	-	76(21.7)
	판매서비스직	24(6.8)	2(0.6)	14(4.0)	5(1.4)	2(0.6)	-	47(13.4)
	기타	13(3.7)	1(0.3)	3(0.9)	-	-	-	17(4.8)
χ^2				36.266(.068)				
소득	100만원이하	23(6.6)	2(0.6)	14(4.0)	8(2.3)	4(1.1)	-	51(14.5)
	100-200만원	75(21.4)	12(3.4)	48(13.7)	11(3.1)	6(1.7)	1(0.3)	153(43.6)
	200-300만원	27(7.7)	11(3.1)	31(8.8)	14(4.0)	6(1.7)	1(0.3)	90(25.6)
	300만원이상	24(6.8)	10(2.8)	13(3.7)	6(1.7)	4(1.1)	-	57(16.2)
χ^2				20.370(.158)				
TOTAL	149(42.5)	35(10.0)	106(30.2)	39(11.1)	20(5.7)	2(.6)	351(100.0)	

7. 제모관리 만족도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제모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로는 200-300만 원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3.26으로 제모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표 28>.

<표 2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제모만족도 분석결과

구분	N	제모만족도		F(p)	Duncan	
		평균	표준편차			
연령 구분	20대	222	3.24	.94	.494(.611)	-
	30대	111	3.34	1.04		
	40대	18	3.18	.81		
최종 학력	고졸	73	3.44	.87	1.447(.218)	-
	전문대졸	111	3.11	.88		
	대졸	136	3.30	1.06		
	대학원이상	20	3.32	1.00		
	기타	11	3.10	.99		
직업	학생	57	3.38	.95	.958(.444)	-
	전업주부	54	3.08	.81		
	전문직	100	3.31	1.09		
	사무직	76	3.24	.90		
	판매서비스직	47	3.37	.90		
	기타	17	3.00	1.03		
소득	100만원이하	51	3.16	.96	.711(.546)	-
	100-200만원	153	3.28	.84		
	200-300만원	90	3.36	1.06		
	300만원이상	57	3.15	1.12		
TOTAL	351	3.26	.96	-	-	

2) 조사대상자의 미용관리 행동 인식과 제모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제모만족도, 미용관리 행동 인식도, 제모후 만족도, 비키니 브라질리언 만족도, 제모인식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모만족도와 미용관리 행동 인식도, 비키니 브라질리언만족도, 제모인식의 경우에 $r=.276$, $r=.545$, $r=.64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미용관리행동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에 비키니브라질리언만족도, 제모인식도와 각각 $r=.276$, $r=.287$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제모인식도와 비키니브라질리언 만족도는 $r=.365$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표 29>.

<표 29> 조사대상자의 미용관리 행동과 제모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미용관리행동	제모후만족도	비키니 브라질리언 만족도	제모인식도
미용관리행동	-			
제모후만족도	-.034	-		
비키니·브라질리언만족도	.276(**)	-.053	-	
제모인식도	.287(**)	-.053	.365(**)	-

** $p<.01$

3)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모를 하면 hair가 두껍게 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받아본 후 어떠신가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027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모를 하면 hair가 더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220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제모를 받으시고 hair의 수가 감소되는 것을 느끼시나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123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제모를 받으시고 몇 회부터 hair의 감소를 느끼셨나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158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1$). '인그로운 hair가 있다면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2.472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회귀식의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제모를 하면 hair가 더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제모를 받으시고 hair의 수가 감소되는 것을 느끼시나요?', '제모를 받으시고 몇 회부터 hair의 감소를 느끼셨나요?', '인그로운 hair가 있다면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표 30>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산성 통계량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258	.337		9.667***	.000	
제모 후 두꺼운 hair	.026	.097	.027	.269	.788	3.713
제모 후 빠른 성장	-.214	.097	-.220	-2.197*	.029	3.618
제모 후 hair 탈모	.130	.063	.123	2.061*	.040	1.289
hair 탈모 감소회차	-.136	.047	-.158	-2.918**	.004	1.061
인그로운 hair 제거인지	.131	.053	.135	2.472*	.014	1.075
R 곱=.125 F=9.926**						

*p<.05, **p<.01, ***p<.001

4)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제모만족도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의 경우 회귀계수값 .301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고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의 경우 회귀계수값 .283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고 질염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경우 회귀계수값 .020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고 위생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경우 회귀계수값 -1.205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한번 받아보셨다면 꾸준히 관리 받고 싶으신가요? 의 경우 회귀계수값 .634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다른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의 경우 회귀계수값 .152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회귀식의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모만족도에 따른 제모만족도의 경우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우리나라에서도 20-30대 여성은 ‘비키니 제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브라질리언 제모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부분일 수 있다. 브라질리언을 경험한 여성들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모후의 느낌이 좋고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임을 느끼며, 더 편리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반수를 넘는다고 보고하였다(Riddell L. and Varto. H. and Hodgson. Z. 2011).

우리나라 여성들도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서구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되

고 의식수준이 깨어지면서 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실상 우리나라의 일부 병. 의원에서도 의사들이 위생적인 측면의 이유로 비키니, 브라질리언 제모를 권유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 후 인식도 요인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45	.246		9.525***	.000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인지	.331	.096	.301	3.464***	.001	2.579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서비스정도	.281	.107	.283	2.755*	.045	4.126
비키니&브라질리언 절염도움정도	.002	.104	.002	.020	.984	3.306
비키니&브라질리언 위생도움정도	-.134	.111	-.131	-1.205	.229	4.051
비키니&브라질리언 지속관리의향	.082	.129	.081	.634	.526	5.595
비키니&브라질리언 타인추천의향	.151	.120	.152	2.428*	.049	5.016
R 곱=.164 F=3.641**						

*p<.05, **p<.01, ***p<.001

5) 얼굴 제모인식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얼굴 제모인식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얼굴 제모에 대해 알고 있으세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157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얼굴 제모를 받고 만족도가 높은신가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253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얼굴 제모를 받고 화장이 더 잘 받는 것을 느끼시나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129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얼굴 제모를 한번 받아 보셨다면 꾸준히 관리 받고 싶으신가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062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제모를 다른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의 경우 회귀계수값 .122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회귀식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표 32>.

얼굴제모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 얼굴제모를 하고 나면 제모부위에 가해지는 피부자극에 의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제모 후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여드름 피부는 더욱 얼굴제모에 주의를 요해야하며, 제모전문성과 안정 및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눈썹 전문 관리실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눈썹제모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제모관리이며, 만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32> 얼굴 제모인식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77	.303		8.848	.000	
얼굴 제모 인지	.204	.095	.157	2.143*	.033	1.753
얼굴 제모 서비스	.264	.125	.253	2.514*	.027	3.412
얼굴 제모 후 화장품흡수정도	.132	.112	.129	2.289*	.035	3.274
얼굴 제모 지속관리의향	-.069	.126	-.062	-.547	.585	4.108
얼굴 제모 타인추천의향	.102	.115	.122	2.020*	.046	3.334
R 곱=.21 F=1.38						

*p<.05 상수: 회귀분석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수치

V. 결론 및 한계점

외모관리 행동은 일반적으로 헤어스타일 및 모발, 두피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스킨케어, 체형관리, 다이어트, 미용성형, 제모관리 등을 말한다. 특히 제모에 관한 관리행동으로 바디제모, 얼굴제모, 비키니, 브라질리언 제모 등 건강한 피부와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결 케어를 위한 관리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여성들의 외모관리의 한 분야로서 보편화 되어있는 제모관리가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기를 지나 성장의 추세를 감안하여 보다 확실한 미용관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4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사항, 피부관리 행동, 미용관리 행동, 제모관리 행동 및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문항 등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부를 제외한 총 35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설문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20대 63.2%, 30대 31.6%, 40대 5.1%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로는 미혼 70.7%, 기혼 27.9%, 기타 1.4%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 20.8%, 전문대졸 31.6%, 대졸 38.7%, 대학원 이상 5.7%, 기타 3.7%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 16.2%, 전업주부 15.4%, 전문직 28.5%, 사무직 21.7%, 판매서비스직 13.4%, 기타 4.8%로 나타났다. 소득으로는 100만 원 이하 14.5%, 100-200만 원 이하 43.6%, 200-300만 원 이하 25.6%, 300만 원 이상 16.2%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얼굴 피부의 유형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살펴본 결과, 20대와 30대의 경우 복합성이 각각 18.6%, 8.3%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건성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1$), 20대의 경우 여드름, 30대의 경우 주름살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모두 문제없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01$). 기혼의 경우 피부 관리 방문 12.3%($p < .01$), 전문직과 전업주부의 경우 피부 관리실 방문이 각각 11.4%,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소득이 높을수록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 관리가 높게 나타났다($p < .05$). 또한 기혼이 미혼보다 월 평균 피부 관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미용 지출 비용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지출비용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셋째, 미용관리 행동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에 관련된 인식도가 높게는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헤어스타일이 사람의 인상·스타일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판매서비스직 4.04, 전문직 3.98, 사무직 3.96, 학생과 전업주부 3.46점순으로 나타났다($p < .001$). 한편,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세안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1$),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은 20대 3.41, 30대 3.68, 40대 3.83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p < .01$), 소득별로는 300만 원 이상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 < .001$). 그러나 최신 유행 패턴이나 색상으로 색조화장을 즐겨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3.0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5$).

넷째, 첫 제모를 시작한 나이는 20대 20.95세, 30대 25.03세, 40대 26.50세로 연령이 낮을수록 시작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시작한 나이가 많은 것으로($p < .001$). 학생의 경우 19.40세로 가장 낮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24.07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제모를 한 기간이 길었으며($p < .001$), 300만 원 이상의 월소득자의 경우 6.18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p < .01$). 전체적으로 겨드랑이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리 28.5%, 팔 13.4%, 브라질리언 13.1%, 안면윤곽 6.6%, 비키나라인 2.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면도 42.5%, 전문 관리실 30.2%, 레이저 11.1%, 화장품 10%, 제모기 5.7%, 스트립 제모 0.6%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제모 만족도는 3.26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제모만족도, 미용관리 행동 인식도, 제모 후 만족도, 비키니 브라질리언 만족도, 제모인식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모만족도와

미용관리 행동 인식도, 비키니 브라질리언만족도, 제모인식의 경우에 $r=.276$, $r=.545$, $r=.64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미용관리행동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에 비키니브라질리언만족도, 제모인식도와 각각 $r=.276$, $r=.287$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제모인식도와 비키니브라질리언 만족도는 $r=.365$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여섯째, 제모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모를 할 때와 다른 제모방법의 차이 및 전문 샵에서 제모를 받는 것과 셀프 제모와의 차이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향후 제모서비스의 의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또한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p<.001$),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은 후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그러나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받는 것이 질염이나 위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p<.05$).

일곱째, 얼굴 제모인식에 따른 제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얼굴 제모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p<.05$), 얼굴 제모에 대한 만족도와 제모 후 화장이 잘 받는 것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얼굴 제모의 꾸준한 관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겠다는 응답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성인여성들의 경우 피부관리 행동과 미

용관리 행동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외모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젊은 층의 경우 피부관리 행동에 비해 외모관리 행동이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모관리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제모관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제모관리를 하는 신체부위에서는 겨드랑이와 다리 및 팔이 높아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키나라인과 브라질리언의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제모관리의 방법에서도 자가 관리로 할 수 있는 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양한 제모방법에 대한 인식과 홍보과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모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을 나타냈으며, 향후 제모관리의 의향과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의 인지 및 얼굴 제모 후 화장이 잘 받는 것을 느끼며 꾸준한 관리를 받을 의향과 추천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브라질리언 제모의 경우는 이미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보편화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여성들도 제모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 기대되며, 브라질리언 제모 관리 후 많은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만족할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 제모관리의 경우 피부관리 행동과 미용관리 행동의 한 분야로서 제모관리를 더욱 활성화 시켜 국내에서 제모관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이 20대~40대의 성인여성을 35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 고른 분포를 가지지 못한 채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일반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는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대상을 더 확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고른 분포를 가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제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제모의 인식과 실태 및 만족도등의 항목에 대한 설문을 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구성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제모관리 산업의 현황으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현숙, 박현경 (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의 영향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5(1). 363-373

강현지 (2010) 두피 모발 관리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고선옥 (2013) 정신건강 수준 정도에 따른 생활체육참여자의 외모관리행태.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김도이 (2009) 네일 샵의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2

김명숙 (2010) 여성의 피부관리가 자아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8

김남해 (2006) 피부미용학. 한국미용교육원. 서울. 2006. 118

김수빈 (2008)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6

김승아 (2008)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김향원 (2011)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43

김현주 (2011)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44

박봉선(2012) 여성들의 생활습관과 안면 피부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1-62

박정아 (2012) 인도 종교 규율에 따른 미용문화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67

백연순 (2013) 복합기능성화장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23

배인선 (2010) 외모관리행동과 모발. 두피관리성향이 제품 구매활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5

서동혜, 손호찬 (2005) 아름다운 나라의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피부 (전자책)주름없는 탱탱한 피부만들기. 617.

서미영 (2011) 미용실의 두피 .모발관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2

손현진(2009) 일부 지역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5(1)

이경숙 (2007)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추구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62

이나영. 손호찬 (2005) 부위별 레이저 제모술의 임상적고찰. 대한피부미용학회. 추계학술대회 57(1) 181

이영애(2012) 여성들의 색조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태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42

이정희 (2005) 여대생의 헤어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디자인 선호도.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35

이혜연. 임미라. 이종신 (2012) 20-40대 여성의 제모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와 만족도. 한국미용학회지. 제 18 권 435-445

이혜원 (2009)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주영 (2011) 여성의 외모관리에 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0

윤초희 (2010) 미용 관련속담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64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태도연구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나래 (2011) 뉴욕 및 서울 거주 여성들의 스파 트리트먼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이수근 (2013) 여성신문의 약속 여성이 힘이다. 미인피부과 대표원장. 1142호 라이프(2011-07.11)

이혜원 (2009)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69-73

조은정, 변재철, 오수아, 서구일 (2003) 제모레이저를 이용한 좁은 이마 확장술 60예. 대한피부과학회지. 41(1) 123

장인숙, 양창섭, 강세영, 선승호, 이승호, 최혁용, 서형식 (2012) 한의학 임상에서의 제모시술 치료 원리와 활용에 대한 고찰. 경락경혈학회지. 29 (1) 17-22

장혜영 (2012) 여성공무원의 외모관리 인식과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41

차혜림 (2013)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미용,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5

최영심 (2012) 네일 살롱 서비스품질과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0

(외국문헌)

Agencies. (2013). Hair removal methods for women - which is the best one to get rid of unwanted hair?, <http://health.india.com/beauty/hair-removal-methods-for-women-which-is-the-best-one-to-get-rid-of-unwanted-hair/> 2013년 9월 16일 검색

Braverman, E. R. (1997). The healing nutrients within; Facts, findings, and new research on amino acids, secon edition, New York: McGraw-Hill.

Cox, C. J. &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 Sex Role, 56-58

D'Angelo, Janet; Dean, Paula; Deitz, Sallie; Hinds, Catherine; Lees, Mark; Miller, Erica; Zani, Alexandra. (2003). Milady's standard comprehensive training for estheticians.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Garrison, R. (1997). Nutrition desk reference, thi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Gerson, Joel. (1999). Milady's standard textbook for professional estheticians, eighth edition,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Gerson, Joel. (2004). Milady's standard fundamental for estheticians, ninth edition,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9 154-179
14 321-376

Gio, Fino. (2000). Modern electrolysis. NY: Hair Publishing.

Hinkle, A. R., and R. W. Lind. (1968). Electrolysis, thermolysis and the blend: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permanent hair removal. Los Angeles: Arroway.

Italy Rica company References

Janet Wickell. 2012. Best waxing and hair removal methods,
<http://howskinworks.com/facts-about-waxing-and-other-hair-removal-methods/> 2013년 9월 3일 검색

Jennifer L.Bercaw-Pratt MD, Xiomara M. Santos MD, Judith Sanchez MD, Leslie Ayensu-Coker MD, Denise R. Mebgen MD, Jennifer E. Dietrich MD, MSc. (2011). The Incidence, Attitudes, and Practices of the Removal of Pubic Hair as a Body Modification

Kaiser, S.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Kirshman, G. (1998). Nutrition almanac, four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Laird, Susan. Electrolysis. <http://www.hairzapper.com>
2013년 9월 23일 검색

Milady. (2003). Milady's standard cosmetology.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Miss Humphreys. Waxing Myths & Facts,
<http://www.misshumphreys.com/Myths.html> 2013년 9월 7일 검색

Murray, M. (1996). Encyclopedia of nutritional supplements; Essential guide for improving your health naturally, Rocklin, CA: Prima Publishing.

Pugliese, Peter. (1991). Advanced professional skin care. Bernville, PA: APSC Publishing; 162-165.

Riddell L. and Varto. H. and Hodgson. z. (2011). Smooth Talking: the phenomenon of pubic hair removal, <http://www.bcwomens.ca/info/>
2013년 9월 28일 검색

Rudd, N. A. & Lennon, S. J. (2000).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Submitted by Kanika Mehta. All about waxing,
<http://topnews.ae/content/218410-all-about-waxing>, 2013년 10월 14일
검색

Victoria Sherrow. (2006). Encyclopedia of Hair: A Cultural History, 180-181, 315-316

ABSTRACT

Awareness of Hair Removal in Adult Women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Hair Removal Areas

Lee, Yoo Jin

Major in Skin care and Obesity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Welfare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th today's ever-increasing social activities of women, their interest in personal appearance and efforts to have good looks have increased as well, and this trend has moved the beauty industry to pursue not only maintenance of natural looks or personal grooming but also effective improvement of appearance and beauty with healthful look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hair removal industry is being considered a major and even essential area of personal grooming today.

This study surveyed 351 women between 20's and 40's from September 1, 2013 to September 30, 2013 in order to examine their behaviors related with skin care and grooming as well as hair removal

behavior among the women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result. The empirical analysis was verified with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5$, using the program of SPSSWIN 21.0, and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63.2% of the respondents were in 20's, 31.6% in 30's and 5.1% in 40's while 70.7% of the women were single and 27.9% were married. With regard to their education, 20.8% of those surveyed finished high school as their highest level of education, 31.6% finished college, 38.7%, university, 5.7%, graduate school, and 3.7% belonged to other category. In respect of their occupation, 16.2% of the respondents were students, 15.4%, housewives, 28.5%, professionals, 21.7%, office workers, 13.4%, sales representatives, and 4.8% belonged to other category.

Second, regarding the skin types assessed by their subjective judgment, 29.7% of the 20's and 26.1% of the 30's showed the combination skin type while 50% of the 40's showed the dry skin type ($p < .01$). Concerning their skin care behaviors, 43.9% ($p < .01$) of the married women among the respondents as well as 40% of professionals and 57.4% of housewives ($p < .001$) had visited a skin care specialist, showing the highest rates among those surveyed.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visiting a skin care specialist was higher in married women than in single women,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And the amount of skin care expenses increased with their income,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 as well.

Third, with regard to personal grooming behaviors, the

respondents with higher ages and higher education had a higher level of awareness about their personal appearance. The score assessing proper selection of cosmetics for personal skin type was highest in professionals with 3.94 ($p < .01$), and this score increased with their income,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The score assessing the use of functional cosmetics was 3.41 in 20's, 3.68 in 30's and 3.83 in 40's, increasing with age ($p < .01$) while the use of makeup of the latest trends was highest in 20's with 3.05, decreasing with age ($p < .05$).

Fourth, the age of first experiencing hair removal decreased with age ($p < .001$) but increased with education ($p < .001$). The age was lowest (19.4) among students and highest (24.07) among housewives ($p < .001$).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of hair removal increased with age ($p < .001$). Specifically, the most common area of hair removal was the armpits (35.6%), followed by legs (28.5%), arms (13.4%), Brazilian waxing (13.1%), face (6.6%), and bikini waxing (2.8%). And the most common method of hair removal was shaving (42.5%), followed by skin care specialist (30.2%), laser (11.1%), cosmetics (10%), epilator (5.7%), and hair removal strips (0.6%).

Fifth, their satisfaction with hair removal was 3.26, indicating above normal.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hair removal, awareness of the need for personal grooming, satisfaction with Brazilian & bikini waxing,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hair removal,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all the factor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hair removal, awareness of the need

for personal grooming, satisfaction with Brazilian & bikini waxing,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hair removal ($p < .01$). In respect of variables that may affect satisfaction with hair removal, practicing of hair removal, difference in the methods of hair removal, and the difference between using a skin care specialist and self hair removal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as to the future intention of receiving hair removal services ($p < .05$).

Sixth,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Brazilian & bikini waxing ($p < .001$) 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hese types of waxing ($p < .05$). Removal of facial hair showe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p < .05$) along with positive responses to questions related with their satisfaction with facial hair removal and effects on a good makeup ($p < .05$). In addition, facial hair removal positively affected the responses to questions pertaining to future intention of receiving facial hair removal and recommendation to others ($p < .05$) as well.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marketing activities of the hair removal industry with statistical data of skin care and personal grooming behaviors as well as practicing of and satisfaction with hair removal, aimed at solid establishment of this growing industry as a major part of the beauty industry.

-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성인 여성의 제모인식 및 만족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질문 조사의 내용은 순수한 학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비밀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평소에 생각하신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도 빠지면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이 은혜
연구자 : 이 유진

I.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잘 읽어 보신 후 귀하께서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세

2. 귀하의 결혼 여부는?

(1)미혼 (2)기혼 (3)기타 (이혼 ,사별 등)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 이상 (5)기타()

4. 귀하의 직업은?

(1)학생 (2)전업주부 (3)전문직 (4)사무직 (5)판매, 서비스직 (6)기타

5.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월()만 원 정도

II. 피부 관리 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선택)

1. 귀하의 얼굴 피부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민감성

		지 않다	않다		다	다
1	나의 모발상태(머리색, 머릿결)에 만족한다.					
2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잘 따라하는 편이다.					
3	좋은 피부를 갖는다는 것은 외모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일반적인 마사지·팩을 하면 효과가 있다					
5	피부문제점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다.					
6	나의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세안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7	화장 안한 얼굴보다 화장한 얼굴이 더 보기 좋다.					
8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썬 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아이크림 등)					
9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부 화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11	화장을 할 때 보다 지을 때 더욱 신경을 쓴다.					
12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					
13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14	체중 조절을 위해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 자주 간다.					
15	체형을 위해 보정속옷(울인원, 코르셋 등)을 입은 적이 있다.					
16	미용성형은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제모관리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 혹은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제모를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2. 첫 제모는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셨나요?

()

3. 제모를 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4. 제모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1) 주위의 권유로 (2) 인터넷 (3) 매스미디어 (4) 광고지 (5) 기타

5. 귀하께서 제모를 주로 하는 신체 부위는 어디입니까?

(1)안면윤각 (2)팔 (3)다리 (4)겨드랑이 (5)비키니라인

(6)브라질리언(음모관리) (7)기타

6. 제모의 방법 중 자주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1)면도 (2)화장품 (ex비트...) (3)전문 관리실(약성샵) (4)제이저(병원)

(5)제모기(가정용) (6)스트립왁스

7. 6번 문항에 답하신 종류의 제모는 월 몇 회 정도? 월 ()회

8. 6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모의 방법 중 자주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 (1)면도 (2)화장품 (ex비트...) (3)전문 관리실(왁싱샵) (4)제이저(병원)
 (5)제모기(가정용) (6)스트립왁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6번 문항에 답하신 종류의 제모에 만족하십니까?					
2	6번 문항에 불만족 하십니까?					
3	6번 문항에 답하신 제모를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4	6번문항의 제모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하고 싶으세요?					

9.6문항에 (3)번 제모방법을 선택한 분만 답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제모전문관리실 이용하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다					
2	제모전문관리실 주기적 방문하시는 편입니까?					
3	왁싱과 다른 제모방법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4	제모전문관리실과 셀프제모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5	앞으로 꾸준히 전문 관리실에서 제모를 받고 싶으신가요?					

6	제모전문관리실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	-----------------------------	--	--	--	--	--

V. 제모부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1) 인그로운 hair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제모 후 hair가 두껍게 자란다고 느끼시나요?					
2	제모 후 hair가 더 빨리 자란다고 느끼시나요?					
3	제모 후 hair의 수가 감소 되는 것을 느끼시나요?					
4	제모 받으시고 몇 회부터 hair의 감소를 느끼셨나요?	1-2회	3-4회	5-6회	7-8회	9-10회
5	인그로운 hair가 있다면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2) 비키니&브라질리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가 음부 냄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가 위생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4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 경험이 있으신 경우 꾸준한 관리를 원하시나요?					
5	비키니&브라질리언 제모를 다른 사람에게					

	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	---------------	--	--	--	--	--

3) 얼굴제모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얼굴 제모에 대해 알고 있으세요?					
2	얼굴 제모를 받으면 화장이 더 잘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3	얼굴 제모 경험이 있으신 경우 꾸준한 관리를 원하시나요?					
4	얼굴 제모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으신가요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을 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원 첫 수업을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눈앞이네요. 지난 2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교수님들 및 선·후배님들과 어우러져 보낸 배움의 시간이 또한 인격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그간 제게 힘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인자하신 이은혜 교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논문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교수님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대학원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서 저를 격려해주신 감사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제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고, 닦고 싶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 엄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빠, 우리 가족들, 친구 미정, 희정,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예쁜 민성, 정민, 항상 옆에서 친구처럼 부족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솔메이트 경동오빠, 뉴욕비비 원장님들, 뷰티베리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waxing을 처음 알게 도와주신 미국에 계신 오은희 교수님께 이 논문을 바치며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풍성하게 갚으며 한결 같은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2013년 11월
이 유 진 올림